

조선시대 제주도 漂流·漂到人을
통한 정보·지식의 유입 양상

*김나영

1. 머리말
2. 표류기록의 제 양상
3. 이국에 관한 정보의 획득
4. 선진 기술 및 지식의 습득
5. 맺음말

*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학예연구사

[국문요약]

본 논문은 '이국 표류 제주인' 및 '제주 표도 이국인'들을 통해 유입된 정보와 지식들의 양상을 추적하는 물론, 궁극적으로 이것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근대 시기 당시 닫힌 세계였던 조선과 달리 동아시아 각국은 국제적인 무역항을 거점으로 한 광역의 교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중국의 복건과 광둥, 일본의 규슈일대를 비롯, 안남(베트남), 여승(필리핀), 서양의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은 동아시아 해역을 서로 왕래하며 通交해 나갔다. 이때 동아시아 해상 교통로의 중앙에 위치한 濟州島는 이들의 里程標이자 寄港地(때때로 汲水處의 역할 수행)였던 동시에 海航의 위험요소가 산재한 주요 표착 다발지역으로서, 해역을 오가는 많은 異國인들이 빈번하게 제주도에 漂到되었다. 더불어 異國으로 표류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제주인 또한 상당했다. 이에 '이국 표류 제주인'과 '제주 표도 이국인'들은 좀처럼 해외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조선정부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에게 탐문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정리·저술하여 닫혀 있던 조선의 변화와 개방의 기회를 꾀하였다.

다시 말해 그 누구보다도 바다를 무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각 지역의 주변정세에 밝았고, 외부세력에 기민하게 대응할 줄 알았던 이국 표류 제주인 및 제주 표도 이국인들이 전달해 준 해외의 이색적인 정보와 지식은 당시 성리학의 사상적 각성에 의해 조선의 변화와 개방의 기회를 꾀하고 있던 조선 실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결국 이는 당시 조선의 닫힌 세계의 빗장을 열어주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요컨대 이들 표류 제주인을 비롯한 제주 표도 이국인들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선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이국에 관한 이색적인 정보(지리, 지형·풍토, 물산, 대외정세)와 선진기술 및 지식(수차 및 병기제작, 선박제도·조선술, 외국어) 등을 전달하는 중요한 첨병역할을 하였으며, 그러한 점에서 이들은 비공식 영역에서 국제교류의 역할을 담당한 셈이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또 다른 제3자에게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을 전수하는 등 지식의 공유와 재생산의 動因으로 작용되어지고 있었다.

1. 머리말

‘漂流’ 혹은 ‘漂到’라는 일련의 해난사고는 당시 해외로의 이동이나 사적인 대외무역이 통제되었던 조선시대, 동아시아 전반에 걸친 해금정책 하에서 바다를 통해 외부세계와 소통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길이었다.

더욱이 제주도는 제주인들의 집단적 流亡逃散 대책 차원에서 1629년(인조 7)부터 200여 년간 제주인의 출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출륙금지령이 반포되어 육지와 왕래가 지극히 제한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고립의 현실 속에서도 예기치 않게 암암리에 발생하였던 제주인들의 異國으로의 漂流과 異國인들이 제주도로의 漂到¹⁾는 제주인들이 다양한 異文化와 접촉·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주었다. 특히 제주인들이 표착지에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견문·체득한 이색적인 정보와 지식은 현지인들과의 직접적인 상호 접촉·교류를 통해 축적된 결과물이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국의 뒷모습, 속사정까지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연암 박지원은 1796년(정조 20) 제주인 이방익이 대만 해역으로 표류된 후 중국 閩越 지역을 두루 경유해서 귀국한 사실을 두고 ‘공식적인 사신’보다 의미가 훨씬 크다고 말한 바 있다.²⁾

이렇듯 이국 표류 제주인, 제주 표도 이국인들을 매개로 한 체험담은 동시대 성리학에 심취해 바닷길을 단아버렸던 조선 정부 및 지식인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국의 사정을 知得할 수 있는 계기 및 새로운 지식 습득의 동기를 마련해 주었다. 요컨대 이국 표류 제주인, 제주 표도 이국인을 통한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대외정세 및 선진문물의 정보 등은

1) 본고는 ‘제주도’라는 지역적 공간을 중심으로, 濟州人으로서 중국·일본·유구·베트남 등의 異國으로 표류하였다가 고향인 제주도로 송환되어 온 사람을 ‘이국 표류 제주인’이라 지칭하였고, 이와 반대로 제주도로 떠밀려 왔다가 본국으로 송환되어 간 異國人을 ‘제주 표도 이국인’이라 명명하여 이 글을 전개토록 하겠다.

2) 朴趾源, 『燕巖先生書簡帖』 『與仲存』. “... 금번 이방익이 바다에 표류하여 閩越 땅을 두루 뚫고 지나와 만 리에 막힘이 없었으니 그렇다면 사해가 편안하고 조용한 것을 징험하기에 충분하니 속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여러 의심을 통쾌하게 깨뜨린 셈이오, 이는 그 공이 진실로 보통의 한 사람 사신보다 훨씬 낫다하겠소”(박지원 著·박희병 譯,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돌베개, 2005, 138쪽).

국가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정보적 가치를 지닌 것이었으며, 그러한 점에서 이들은 비공식 영역에서 국제교류의 역할을 담당한 셈이기도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이국 표류 제주인과 제주 표도 이국인들을 매개로 쓰여진 표류기록의 실태를 살펴보는 한편, 해당 기록 속에 나타난 정보 입수의 수용 자세 및 유입·획득된 정보와 지식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양상을 추적하고자 한다. 또한 그로 인해 습득된 정보·지식이 당시 조선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제주도를 교두보로 한 동아시아 해상 교류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표류기록의 제 양상

조선시대 표류·표도인의 발생 빈도를 지역적으로 견주어 보았을 때, 단일 지역으로 제주도가 압도적인 수치를 차지한다. 또한 제주인이 異國 표류시 출신지를 전라도 해남, 영암, 강진, 나주 등 타 지역으로 換名[諱稱]하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³⁾ 이처럼 제주도의 표류·표도 빈도수와 정비례하여 이를 기재한 표류기록 또한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다. 이때 ‘표류기록’이라 함은 ‘조선인이 이국에 표류한 기록’과 ‘이국인이 조선으로 표도(표래)한 기록’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으며, 서술주체 및 목적·초점·방식에 따라 公的 측면의 기록과 私的 측면의 기록으로 양분해 볼 수 있다. 양측 기록의 특성을 구분·비교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3) 필자가 조선시대 제주인들의 이국 표류와 이국인들의 제주 표도 실태를 각종 사료를 통해 ‘出海-漂流-漂着-送還’이라는 顛末을 역추적하여 그 발생규모와 빈도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한 결과, 제주인들은 365건·3,667명이 이국으로 표류해 그곳 국가들로부터 구조·송환되어 본국으로 살아 돌아왔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반대로 제주도로 표도해 온 이국인(일본·유구·중국·여송인)들의 표도 발생은 150건·3,955명(이 중 사망자 607명)이 제주도로 표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김나영, 『조선시대 濟州島 漂流·漂到 연구』, 제주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표 1〉 표류기록의 구분

구분	公的 측면	私的 측면
서술자 (저자)	官(정부)	표류 당사자
		표류인의 이야기를 직접 청취한 제3자
		민간에 구전되던 표류 이야기를 채록한 제3자
서술목적	표류사정 파악 및 정보 수집	표류시 견문 및 감회서술
서술조점	실무·사실성 위주	흥미성 위주(과장된 내용 포함)
서술방식	조사·기록적	문학적
분류	『조선왕조실록』·『비변사등록』·『계록』·『표인영래등록』 등에 수록된 問情記(問情別單) 및 『동문관지』·『동문회고』·『번래집요』 등 외교 관계 사정을 기록한 사료	漂海錄 및 민간설화류 등



公·私的 측면

※ 『조선왕조실록』의 표류인 관련 기사 가운데 조사·기록적 측면과 漂海錄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기사가 존재하며, 때때로 漂海錄의 성격에 가까운 기사도 발견됨.

자료: 고석규, 『조선시대 표류경험의 기록과 활용』, 『島嶼文化』 제31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08; 정성일, 『한국 표해록의 종류와 특징』, 『島嶼文化』 제40집,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2012; 최영화, 『조선시대 표류를 통한 해외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추이』, 『동아시아 문화 교류와 이동의 기록』, 보고서, 2015)을 참고하여 표로 작성함.

한편 이국으로 표류해 간 조선인에 관한 표류기록 중 사적 측면의 기록으로서 ‘漂海錄’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표류 조선인 관련 표해록 현황

순번	표류자	출항 목적	표류지	시기			수록지(저자)	저자 분류	관련 조사기록
				표류	귀국	저술			
1	반년·정록 등 6명	미상	유구 臥蛇島	1450	1453	1453	『단종실록』	官	『단종실록』
②	양성·고석수 등	미상	유구 仇彌島 (久米島)	1456	1461	1461	『세조실록』 *1461년 기록을 명령함 *1462년 기록됨	官	『세조실록』
3	초득성 등 8명	미상	유구 宮古島	1461	1461	1462	『세조실록』 *양성 표류기에 함께 실됨	官	『세조실록』
④	김배희 등 7명	공물	중국 절강성	1470	1471	1471	『성종실록』	官	『성종실록』

순번	표류자	출항 목적	표류지	시기			수록지(저자)	저자 분류	관련 조사기록
				표류	귀국	저술			
5	김비의·강무·이정 등 8명	진상	유구 與那國島	1477	1479	1479	『성종실록』	官	『성종실록』
6	이섬 등 47명	공무	중국 長沙嶺	1483	1483	1483	『성종실록』 내(김종직)	官	『성종실록』
						1706	『해외문견록』(송정규) -『官吏漂海』	제3자	
7	최부 일행 43명	奔喪	중국 절강부 영과부	1488	1488	1511 이후	『금남 표해록』(최부)	官 + 표류 당사자	『성종실록』
						1706	『해외문견록』(송정규) -『崔錦南漂錄節略』	제3자	
8	장희이 등	미상	일본 妻島	1499	1500	1501	『연산군일기』	官	『연산군일기』
9	김기손·만주 등 13명	공물	중국 회안부	1534	1534	1534	『중종실록』	官	『중종실록』
10	강연공 등 4명 (왜인 15명 동승/총19명)	진상	일본 五島	1539	1540	1540	『중종실록』	官	『중종실록』
11	박손 등 12명	미상	유구	1542	1546	1546	『명종실록』 내(윤결)	官	『명종실록』
							『패관잡기』(이숙권) 내 -『琉球風土記』(유대용)	제3자	
12	법성 등	운송 (불상)	일본 北海道	1654	1656	1665	『곡운집』(김수증)	제3자	-
13	김여휘 등 32명	귀로	유구 大島	1662	1663	1706	『해외문견록』(송정규) -『記琉球漂還人語』	제3자	『현종(개수) 실록』 『표인영래등록』 『동문회고』 『변례집요』
						미상	『김여휘등표해록』(미상)	미상	
14	우빈 등	공무	일본 翠芳島	1679	1680	1732	『탐라문견록』(정운경)	제3자	-
15	김복수 등	미상	안남	1623~1659	1663~1699	1793	『여와집』(목만중)	제3자	-
16	김대황 등 24명	진상	안남 회안부	1687	1688	1696	『지영록』(이익테) -『金大瓊漂海日錄』	제3자	『숙종실록』 『비변사등록』
						1706	『해외문견록』(송정규) -『記安南漂還人事』	제3자	
						1805	『주영편』(정동유)	제3자	
17	고상영 등 24명	진상	안남 회안부	1687	1688	1732	『탐라문견록』(정운경)	제3자	
18	이지항 등 8명	이동	일본 北海道	1696	1697	미상	『해행총재』(이지항) -『漂舟錄』	표류 당사자	-

순번	표류자	출항 목적	표류지	시기			수록지(저자)	저자 분류	관련 조사기록
				표류	귀국	저술			
19	강두추·고수경 등 54명	진상	일본 사즈마 屋久島	1698	1699	1732	『탐라문견록』(정운경)	제3자	『표인영래등록』 『변례집요』 『공의피양상』2
20	대정현 관리 등 42명	공무	일본 사즈마 屋久島	1701	1702	1702	『탐라문견록』(정운경)	제3자	『표인영래등록』 『변례집요』 『공의피양상』3
21	산해 등 39명	진상	일본 사즈마 永良部島	1704	1704	1732	『탐라문견록』(정운경)	제3자	『표인영래등록』 『변례집요』
22	이계민 등 7명	곡물 매매	일본 五島	1706	1706	1706	『해외문견록』(송정규) -『記日本漂還人語』	제3자	『표인영래등록』 『동문취고』 『변례집요』 『공의피양상』3
23	원구혁 등 28명	공물	일본 筑前州	1720	1721	1732	『탐라문견록』(정운경)	제3자	『표인영래등록』 『동문취고』 『변례집요』 『공의피양상』7
24	이기득 등 25명 (제주인 17명 포함)	진상	일본 五島	1723	1723	1732	『탐라문견록』(정운경)	제3자	『표인영래등록』 『동문취고』 『변례집요』 『공의피양상』8
25	김시위 등 26명	진상	일본 五島	1723	1723	1732	『탐라문견록』(정운경)	제3자	『표인영래등록』 『동문취고』 『변례집요』 『공의피양상』8
26	이건춘 등 60명	공무	일본 對馬島	1724	1724	1732	『탐라문견록』(정운경)	제3자	『표인영래등록』 『변례집요』 『공의피양상』8
27	김일남·부차웅 등 9명	운송	유구	1726	1728	1732	『탐라문견록』(정운경)	제3자	『비변사등록』 『통문관지』 『동문취고』
28	고완 등 20명	상매	일본 五島	1729	1729	1732	『탐라문견록』(정운경)	제3자	『표인영래등록』 『동문취고』 『변례집요』
29	윤도성 등 30명	곡물 매매	대만 彰化縣	1729	1730	1732	『탐라문견록』(정운경)	제3자	『영조실록』 『비변사등록』 『통문관지』
30	송완 등 30명	곡물 매매	대만 彰化縣	1729	1730	1732	『탐라문견록』(정운경)	제3자	『영조실록』 『비변사등록』 『통문관지』
31	장한철 등 29명	공무	유구 虎山島	1770	1771	1771	『표해록』(장한철)	표류 당사자	-

순번	표류자	출항 목적	표류지	시기			수록지(저자)	저자 분류	관련 조사기록
				표류	귀국	저술			
32	이방익 등 8명	미상	대만 澎湖島	1796	1797	1797	『연암집』(박지원) -「書李邦翼事」	官 + 제3자	『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동문관지』 『변례집요』
						미상	『표해록』(이방익) *한문본과 한글본 존재	표류 당사자	
						미상	『표해가』(이방익)	표류 당사자	
						미상	『성주이씨세적』 -「南遊錄」	제3자	
33	문순득 등 6명	상매	유구, 여송	1801	1805	미상	『유암총서』(이강희) -「漂海始末」	제3자	『순조실록』
34	풍계현정 등 27명	운송 (불상)	일본 筑前州	1817	1817	1821	『일본표해록』 (풍계현정)	표류 당사자	『동문회고』 『변례집요』 『표민피양상』M39
35	최두찬 등 50명	귀로 (상경)	중국 절강성 영과부	1818	1818	미상	『승사록』(최두찬)	표류 당사자	-
36	양지회 등 50명	귀로 (상경)	중국 절강성 영과부	1818	1818	1820	『표해록』(양지회)	표류 당사자	-
37	김광현 등 7명	출어	중국 보타산	1828	1829	1829	『삼전고』(박사호) -「耽羅漂海錄」	제3자	『동문회고』
38	고성상 등 33명	상매	유구 伊江島	1831	1832	1832	『연원직지』(김경선) -「濟州漂人問答記」	제3자	『동문회고』

자료: 정성일, 『한국 표해록의 종류와 특징』, 『島嶼文化』 제40집,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소, 2012, <부록. 한국 표해록 일람표>의 내용을 인용·보충함.

주1) 순번 가운데 □로 표기한 것은 표류 제주인과 관련된 사항임.

주2) 저술 시기는 수록지의 편찬시기임.

주3) 순번 16-17, 순번 29-30, 순번 35-36은 동일한 표류 사건임.

<표 2>에서 파악되어진 총 38건의 표류 조선인 관련 표해록 가운데 표류 주체가 제주인이거나 해난사고 지역이 제주도와 관련한 표해록만을 추출한 결과, 무려 32건(84.2%)의 표해록이 확인되었다. 해당 32건의 표해록을 서술자(저자)의 유형별로 나눠보면, 그 첫 번째로 최부(추쇄경차관)·장한철(제주인으로 향시합격자)·최두찬(향시합격자)·양지회(나주향청의 향리)와 같이 문장 구사능력 등의 학식을 지녔던 표류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표류담을 서술한 경우가 있다. 두 번째로 官의 명에 의해⁴⁾ 송환된 표류 제주인들을 조사,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경우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영록』,

『탐라문견록』, 『해외문견록』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접한 표류 제주인들이 표류시 겪은 체험과 견문을 토대로 제3자인 당대 지식인들에 의해 기록된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표 2〉에서 표류 제주인 관련 표해록이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18세기 다수 제주인들의 표류담을 한데 모은 纂輯書로서 송정규의 『해외문견록』(1706년)과 정운경의 『탐라문견록』(1732년) 존재에 기인한다. 송정규가 제주목사 재임기에 저술한 『해외문견록』 16건의 기사 가운데 10건은 제주인의 이국 표류기사(5건)·이국인의 제주 표도기사(5건)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정운경은 1731년(영조 7)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아버지 정필녕을 따라 제주도에 왔다가 표류 경험이 있는 제주인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탐라문견록』⁵⁾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에는 이국 표류기사(13건) 및 국내 표류기사(1건) 등이 수록되어 있다.

1779년(정조 3) 11월 상매차 출선하였다가 추자도 앞바다에서 표류를 당한 추자도 출신 이재성 등 10명(남8, 여2)은 유구국에 표착하여 1년 3개월여 만에 북경을 경유해 송환되었다. 해당 표류 사례에 대한 『비변사등록』의 기사를 보면, 정조는 비변사의 보고가 허술하자 “표류인들은 몇 만 리를 거쳤으니 물어볼 만한 것, 알아야 할 일이 많은데 명색이 비변사가 구경하듯 하였으니 지극히 한심하다.”라고 질책하면서 罪過를 엄중하게 캐물어 밝히라고 하고 있다.⁶⁾ 이렇듯 조선시대 정부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들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되었던 표류·표도인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

4) 최부의 『표해록』인 경우 표류 당사자인 본인이 저술한 것이지만, 그 동기는 성종의 명령을 받아 작성되어진 것이며 『성종실록』 성종 19년(1488) 6월 14일 병오조, 박지원의 『연암집』 『서이방익사』 또한 주체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표류 제주인 이방익의 표류담을 기이하게 여긴 정조의 명령으로 찬집된 것(『승정원일기』 정조 21년(1797) 윤6월 27일 을축조)이다.

5) 朴趾源, 『燕巖先生書簡帖』 『與仲存』, “... 정운경이 쓴 『탐라문견록』에는 적당히 추측하여 부연한 곳이 많은 듯싶네”(박지원 著·박희명 譯,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돌베개, 2005, 86-87쪽).
※ 박지원은 1796년 대만으로 표류해 갔다 생환되어 온 이방익 일행이 표류기를 지어 바칠 것을 정조에게 명을 받은 이후, 처남인 李在誠에게 보낸 서간에는 1732년 정운경이 쓴 『탐라문견록』에 대해 위와 같이 평하고 있다. 이에 당시 私的 측면에서 편찬되어진 표류 관련 책들이 지식인 층에게 널리 회자되어 읽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 『비변사등록』 권162, 정조 5년(1781) 2월 15일조.

였으며, 이러한 관심의 발로는 이들의 견문 및 체험을 매개로 정보 획득 및 지식 습득의 원천으로 삼고자 하는데서 비롯되었다.

요컨대 이들 표류 제주인을 비롯한 제주 표도 이국인들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선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보와 지식 등을 전달하는 중요한 첨병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3. 이국에 관한 정보의 획득

1) 지리정보

현존하는 독립된 제주도 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702년(숙종 28)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에 의해 그려진 『耽羅巡歷圖』(보물 제652-6호) 중 『漢拏壯囑』을 들 수 있다. 이 지도의 구도는 남쪽을 지도 상단에 배치하였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24방위를 표시하여 주변 지역과의 대략적인 위치 관계를 이 한 장의 지도로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 지도는 한반도 남해안 일대의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즉, 日本의 對馬, 一歧(壹岐), 女人國 및 琉球國, 安南[베트남], 交趾[베트남 북부 통킹·하노이 지방의 옛 이름], 暹羅[태국], 占城[베트남 중·남부의 참족이 세운 나라], 滿刺加[말레이반도]를 비롯한 중국의 여러 지역명(寧波府, 蘇州·杭州, 楊州, 山東, 青州)을 배치하여 그려 놓고 있는데, 거리 관계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단지 방향만을 고려하여 그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지도 하단에는 지도의 제작 시기 및 지방관의 이름, 道理와 면적, 각 방위에 따라 주요 주변국까지의 거리를 기재해 놓아 그 원근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⁷⁾

그렇다면 해로를 폐쇄하고, 해양력을 극도로 억제하였던 조선의 현실적 상

7) 오상학, 『『耽羅巡歷圖』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 『耽羅巡歷圖研究論叢』, 濟州市·耽羅巡歷圖研究會, 2000, 31-32쪽.

황에서 이형상은 어떻게 제주도를 둘러싼 해외 국가 및 지역의 위치를 파악해 제주도 지도에 그려 넣을 수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이형상이 제주목사 해임 후인 1704년(숙종 30)에 찬술한 제주도의 인문지리서인 『南宦博物』⁸⁾(보물 제652-5호)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저서에는 총 37항목에 걸쳐 제주도의 읍호·노정·자연환경·사적·인물·풍속 등이 담겨져 있으며, 특히 제주도 주변의 섬과 바다, 지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중 「誌路程」條에는 「한라장축」 하단에 기재된 이국의 지리정보를 <표 3>에 보이는 바와 같이 유사하게 적고 있으며, 이어 A-1)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표 3> 『耽羅巡歷圖』 중 「漢孛壯囑」과 『南宦博物』 속 異國에 대한 지리정보 비교

『耽羅巡歷圖』 중 「漢孛壯囑」(1702년)			『南宦博物』 중 「誌路程」條(1704년)		
방향	지명[국명]	거리	방향	지명[국명]	거리
北距	海南	970리	子距	海南 館頭梁	970리
東距	日本國	2,000여 리	乙距	對馬島	2,000여 리
			辰距	江戶	4,000여 리
			巽距	玉球島	3,000여 리
			巳距	一岐島	3,500여 리
丙距	女人國	8,000여 리	丙距	女人國	8,000여 리
午距	琉球國	5,000여 리	午距	琉球國	5,000여 리
丁距	安南國	17,000여 리	丁距	安南國	17,000여 리
未距	暹羅國·占城	10,000여 리	未距	暹羅國·占城	10,000여 리
坤距	寧波府	8,000리	坤距	寧波府	8,000여 리
申距	蘇州·杭州	7,000리	申距	蘇州·杭州	7,000리
庚距	楊州	7,000리	庚距	楊州	7,000리
辛距	山東省	10,000여 리	辛距	山東省	10,000여 리
戊距	靑州	10,000여 리	戊距	靑州	10,000여 리

8) 이형상의 『南宦博物』 초두에 “효인 윤두서가 편지로 탐라의 고적에 대해 묻고, 또 이르기를 널리 색다른 것을 듣고자 하니, 『남환박물』 13,850여 언을 써서 주다”라는 기록을 남겨 찬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에 윤두서가 이형상 목사에게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묻은 것이 재임중의 일인지, 해임 후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저술시기를 ‘甲申初秋題于永陽之浩然亭’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 최종 탈고한 해는 해임 후인 1704년, 고향인 경북 영천으로 돌아가 이 책을 윤두서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남환박물』에 대한 내용은 아마도 재임 중의 수집한 자료 및 초본을 바탕으로, 해임 후 영천으로 돌아가 수정·보완하여 탈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A-1)

다른 나라 漂到人들이 전하는 바가 이와 같고, 본도[제주도] 漂還人 중에 또한 나이 많고 일을 밝게 아는 이들이 많은데 매양 이와 같이 말하였다.

즉, 이형상이 『탐라순력도』 「한라장축」에 제주도를 중심으로 주변 국가에 대해 그려 넣을 수 있던 것은 제주목사 부임 전 조선 및 중국 서적, 해외지도 등을 통해 기 축적된 지리적 정보⁹⁾ 위에 제주목사 재임시 표도해 온 이국인과의 間情을 비롯, 제주인 중 생전에 해외로 표류하였다 생환되어 온 古老로부터 전해들은 해외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해당 글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남환박물』 「誌地」條에는 A-2)와 같은 글이 기재되어 있다.

A-2)

곁에 늙은 아전이 있었는데, 일찍이 安南에 표류했다가 돌아온 『過海日記』를 가지고 있었다. 나에게 무릎걸음으로 나아와 말하기를, “저것은 馬島입니다. 江戶입니다. 玉球島입니다. 一岐島입니다. 女人國입니다. 琉球國입니다. 安南國입니다. 暹羅입니다. 占城입니다. 滿刺加입니다. 寧波府입니다. 蘇杭州입니다. 楊州입니다. 山東입니다. 靑州입니다.”라고 하였다. -日記 중에 “風土의 物産을 갖추어 실었는데, 대개 李芝峯[이수광]의 문답과 거의 같았다. 또 말하기를 ‘安南에 머문지 3년 만에 때마침 장사로 간 登萊의 배를 만나서 쌀 6백 석을 주기로 약속하고 저 바다를 지나 중국 지방으로 들어갔는데 곳곳에서 수색하여 검사하니 배의 틈에 숨어서 蘇州와 杭州 지경을 경유하여 대정(현)에 돌아와 정박하였다.’라고 하였다. 그때 啓聞도 또한 이와 같았다.”

위 글을 보면 제주목사 이형상의 곁에서 제주도 주변 국가에 대해 읊은 衙前은 1687년(숙종 13) 9월 안남[베트남]으로 표류하였다 중국의 상인에

9) 『남환박물』은 이형상이 일차적으로 순력하며 직접 체험하고 들은 내용을 신고 있으며, 『여지승람』, 『지지』, 임제의 『남명소승』, 김정희의 『제주풍토록』, 김상헌의 『남사록』, 최부의 『표해록』, 마테오리치(利瑪竇)의 『곤여만국전도』 등을 참고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 보다 풍성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형상 著, 이상규·오창명 譯,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12쪽).

의해 중국의 여러 省을 경유, 1688년(숙종 14) 12월 생환되어 온 김대항 일행의 표류기록인 『過海日記』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 책의 내용을 근거로 이형상 목사에게 제주도를 둘러싼 諸國들을 설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형상이 「漢拏壯囑」이란 제주도 지도를 그리면서 그 둘레를 에워싼 주변 국가들도 함께 그려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제주목사 재임시(1702년 3월~1703년 6월)에 현지 제주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정보와 그가 직접 대면하고 문정하였던 표류·표도인들을 통해 얻어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¹⁰⁾ 그가 이러한 지도를 그리게 된 목적은 기재된 바가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시 경세치용의 실증주의적 학문의 분위기 및 새로운 문물에 대한 높은 지적 호기심 속에서 동아시아 중심에 자리한 제주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그의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비변사등록』을 비롯한 『제주계록』 등의 사료를 보면 이국으로 표류하여 다행히 생환해 돌아온 표류인을 비롯, 제주도에 표도해 온 이국인을 대상으로 間情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문정 사항에는 항상 그들의 출신지[출항지]를 중심으로 해당 국가 내 주요 지역 간 거리에 대해서 질문하여 해당 정보를 확보하였다.

이국으로 표류되었다 송환되어 온 제주인 몇몇의 표류기록 가운데에도 송환 路程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표류된 국가의 地形·地理에 밝지 않았던 탓에 이동지역 간의 거리를 대부분 소요된 日數로 표현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반면, 표도 이국인들은 지역 간의 거리를 里를 단위로 하여 수치로써 진술

10) 최부(1488년 중국 절강 영파부 표류) 및 장한철(1770년 유구 표류)의 『漂海錄』을 살펴보면, 상기 이형상의 「耽羅巡歷圖」중 「漢拏壯囑」에 표시된 異國의 정보와 거의 유사하게 쓰여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이형상의 「漢拏壯囑」은 최부 「표해록」 등의 영향을 받아 그려진 것으로 보이며, 이후 제주출신 文士 장한철의 「표해록」에는 최부 「표해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한라장축」에는 기재되어 있는 安南이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1702년에 작성된 「한라장축」을 기열람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한라장축」의 그려진 목적이 어찌되었건 제주인들로 하여금 대외적 시야를 넓혀 줌으로써 이국으로의 표류·조난시 혹은 異國船의 제주 표도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고 있다. 아무리 自國 내 지역 간 거리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지리적 정보와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서는 이 같은 답변을 하기란 불가능했을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의 출항목적에서도 살필 수 있듯이 표도인 대부분이 바다를 무대 삼아 지역 혹은 국가 간의 해상교역 및 운송업을 담당한 사람들이거나 혹은 어부들이나 까닭에 여타의 일반인보다도 상당한 지리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 정부는 지역 간里程을 질문하는 가운데 반드시 표도 이국인들의 출신지로부터 王都[北京·江戶·琉球王都首里]까지의 里數를 묻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표도 이국인들로 하여금 동일한 지역 간의 거리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답변한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山東省에서 北京까지의 거리에 대해 어떤 표도인은 1,200리라고 답한 반면, 1,400리 혹은 1,440리라 대답하고 있는 이들도 발견된다. 요컨대 비록 같은 값의 정확한 里數는 아니었을지라도 이 같은 표도 이국인들의 間情을 통해 수집·획득한 동아시아 국가 내 주요 지역간 里程의 지리적 정보는 조선 정부의 외교적 관계망을 넓히는데 중요한 몫을 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2) 지형·풍토정보

표류 당사자 또는 이들의 이야기를 청취·채록한 제3자에 의해 私적으로 기록되어진 표해록에는 ‘출항경위-표류과정-송환노정에서의 견문’이라는 기본 이야기 전개구조 속에서 표류인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표착국(지역)의 지형·풍토·형승 및 현지인의 생활모습(용모·언어·풍속·의식주·농사·물산·교역상황) 등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특히 표해록의 여러 내용 가운데에서도 표류 제주인들이 표착 현지의 지리적 정보를 서술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묘사의 형식이 아닌 제주도와의 비교·대조를 통해 해당 지역을 보다 실제적으로 인식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B-1) (1706년 일본 五島 표류: 李繼敏 등 7명)

五島の 땅의 넓이는 **제주의 갑절**이며, 산림이 많았다. … 對馬는 五島에 견주면 절반의 넓이인데, 산지와 거친 땅이 많아 **대략 제주와 비슷했다**. … 또 이계민이 長崎에 있었을 때 통사들이 중국 상인들과 수로를 논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남 절강 해안에서 長崎에 이르기까지는 겨우 3,000리이고, **제주는 그 중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 그 외에 여러 나무들이 겨울에도 푸른 것, 돌 빛깔이 잿빛인 것, 짐승 중에 사슴이 많은 것, 새 중에는 까치가 많은 것, 집에 온돌이 없는 것 등은 모두 **제주도와 같았다**.¹¹⁾

B-2) (1724년 일본 對馬 표류: 李建春 등 60명)

對馬의 돌레가 제주보다 크지 않았다. 어지러운 바위가 뒤섞여 솟았고, 지형이 가파랐으며, 땅이 척박해 밭농사에 적합하지 않았다.¹²⁾

B-3) (1726년 유구 표류: 金日男·夫次雄 등 9명)

섬의 넓이는 그 사람들은 광대하다고 과장하였으나 저희들의 소견으로는 **제주도보다도 작으며**, 토지는 산은 낮고 들은 넓으며, 밭은 많고 논은 적은 것이 우리나라와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¹³⁾

B-4) (1729년 일본 五島 표류: 高完 등 20명)

일본 해안가 땅은 모두 水泡가 있는 돌로 토양이 검은빛을 띠고 잡목이 늘 푸른 것이 **제주와 아주 비슷했다**.¹⁴⁾

이처럼 이국 표류 제주인들이 표착지역의 지형과 풍토 등을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와 오버랩시켜 바라보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연상 원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된 표착지역에 대한 정보는 제3자로

11) 宋廷奎, 『海外聞見錄』 중 『記日本漂還人語』.

12) 鄭運經, 『耽羅聞見錄』 중 第6話.

13) 『비변사등록』 권83, 영조 4년(1728) 4월 5일조.

14) 鄭運經, 『耽羅聞見錄』 중 第12話.

하여금 간접적으로나마 그곳을 쉽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으리라 판단된다.

3) 물산정보

표류 제주인들로 인해 남겨진 표류기록에 담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이국 현지에서 재배되는 농작물(곡류·콩류·구근류·채소류·과실류 등)을 비롯한 재배방법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표류된 국가가 유구·안남 등 조선과의 통교가 미비했던 국가일 경우, 해당국에 대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수집·파악하고자 하였기에 이들 국가로 표류되어 생존된 표류 제주인들의 기록에는 재배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맛본 각종 농작물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져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에서 7건의 유구에 표류해 간 제주인들이 견문한 농작물들을 비교·대조해 살펴보면, 표류 및 송환 경유되는 지역마다의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한 품종의 농작물들이 재배되어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곡류로는 쌀을 비롯한, 기장(黍), 조(粟), 밀(麴), 보리(麥) 등이 확인되는데, 표류 제주인 梁成 일행이 진술한 바처럼 여러 가지 곡류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球根類 및 채소류로는 마(薯蕷), 가지(茄子), 참외(眞瓜), 큰 토란(蹲鴟), 토란(芋), 생강(生薑), 마늘(蒜), 상치(高苳), 파초(芭蕉), 양하(囊荷), 파(葱), 부추(韭), 무(蘿蔔), 박(瓠), 수박(西瓜), 참외(眞瓜), 동과(冬瓜) 등이 보이는데, 이 중 큰 토란(蹲鴟), 마(薯蕷), 가지(茄子), 마늘(蒜)이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유구의 주요 작물로 여겨진다. 과실류로는 청귤(靑橘), 유자(柚子), 매화(梅), 복숭아(桃), 밤(小栗), 도토리(橡栗) 등이 보인다.

(표 4) 유구 표류 제주인이 견문한 유구의 농작물 정보

순번	표류일	표류 제주인	유구에서 견문한 농작물	수록지
1	1456년	양성·고석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農桑은 여러 가지 곡식이 모두 있었으나, 다만 콩(小豆)·보리(大麥)·녹두(菜豆)가 없음. · 팥나무·삼·목면이 없었고, 다만 생수가 있음. · 여러 가지 곡류(穀類)가 모두 있음. · 채소: 파(葱), 부추(韭), 마늘(蒜), 생강(薑), 무(蘿蔔), 상치(高苳), 파초(芭蕉), 양하(蘘荷), 토란(芋), 마(薯蕷) 	『세조실록』 권27, 세조 8년(1462) 2월 16일 신사조
2	1477년	김비의·강무·이정 등 8명	<p>① 閩伊是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쌀(稻), 조(粟) · 채소: 마늘(蒜), 가지(茄子), 참외(眞瓜), 큰 토란(蹲鴟), 생강(生薑) · 과일: 청귤(青橘), 밤(小栗) · 수전농법이 자세히 소개됨. <p>② 所乃是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쌀(稻), 조(粟) · 과일: 유자(柚子), 밤(小栗), 도토리(橡栗) · 채소: 큰 토란(蹲鴟), 치과(女瓜), 생강(薑), 마늘(蒜), 가지(茄子), 호박(瓠), 마(薯蕷) <p>③ 捕月老麻伊是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기장(黍), 조(粟), 밀(牟), 보리(麥) · 채소: 가지(茄子), 큰 토란(蹲鴟), 마늘(蒜), 박(瓠) · 밀, 보리 농작법이 자세히 소개됨. <p>④ 捕刺伊是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기장(黍), 조(粟), 밀(麩), 보리(麥) · 채소: 가지(茄子), 큰 토란(蹲鴟), 마늘(蒜), 박(瓠) <p>⑤ 欵尹是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기장(黍), 조(粟), 밀(麩), 보리(麥) · 채소: 마늘(蒜), 큰 토란(蹲鴟) <p>⑥ 他羅馬是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기장(黍), 조(粟), 밀(麩), 보리(麥) · 채소: 마늘(蒜), 큰 토란(蹲鴟) <p>⑦ 伊羅夫是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기장(黍), 조(粟), 밀(麩), 보리(麥), 쌀(稻) · 채소: 마늘(蒜), 큰 토란(蹲鴟), 생강(薑) <p>⑧ 覓高是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쌀(稻), 기장(黍), 조(粟), 밀(牟), 보리(麥) · 채소: 마늘(蒜), 수박(西瓜), 가지(茄子), 큰 토란(蹲鴟) <p>⑨ 王都-那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물: 쌀(稻) · 과일: 매화(梅), 복숭아(桃), 유자(柚子), 청귤(青橘) · 채소: 큰 토란(蹲鴟), 가지(茄子), 참외(眞瓜), 동과(冬瓜), 부추(韭), 파(葱), 마늘(蒜), 해바라기(葵), 박(瓠), 파초(芭蕉) · 논과 밭의 농작법이 자세히 소개됨. 	『성종실록』 권105, 성종 10년(1479) 6월 10일 을미조

순번	표류일	표류 제주인	유구에서 전문한 농작물	수록지
3	1542년	박손 등 12명	· 농사는 정월에 씨앗을 심어 5월에 수확하고 6월에 심어 10월에 수확하고는 10월 이후에는 토란(芋)을 그 전지에 심어서 연말에 캐는데, 토란은 우리나라에서 심는 것과 같으나 맛이 향긋하여 익히지 않아도 목구멍을 찌르지 않았다. 밭곡식도 1년에 두 번 수확한다.	『성종실록』 권3, 명종 1년(1546) 2월 1일 무자조
4	1662년	김여휘 등 32명	· <u>牛毛라는 채소를 주었다. 곁은 붉고 속은 희었으며, 삶아서 먹으면 그 맛이 마薯蕷와 비슷하니, 이 채소는 오래 굵은 사람에게 가장 알맞아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했다.</u> · 10월이 지나 곡식을 파종하니, 벼는 가을에 심어 여름에 거두는데 매양 1월이나 2월에 모내기를 했다.	『해의문견록』 - 『記琉球漂還人語』
5	1726년	김일남·부차웅 등 9명	· 벼와 곡식이 풍족하여 천민도 굶주리지 않는다. · <u>덩굴로 자라는 채소가 있는데, 한번 덩굴이 지면 무성하게 몇 이랑씩 뿔어 나간다. 계절마다 땅에 심어 서너 뿌리가 나온다. 뿌리는 무(蘿蔔)와 비슷하다. 큰 것은 술잔만 하다. 맛은 달고 물러 사람이 먹기에 가장 좋다. 반드시 껍질을 벗겨 썰서 먹으며, 끼니를 대신한다. 여기저기 심는데, 덩굴 하나에서 몇 백 뿌리를 거둘 수 있어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는다. 속명은 林委라고 한다.</u>	『탐라문견록』 제9화
6	1770년	장한철 등 29명	· 12월 30일 산꼭대기에 올라 마(薯)를 파기도 하였다.	『표해록』
7	1831년	고성상 등 33명	· 선달에 모내기를 하여 다음해 5, 6월에 수확하며 2월에 보리와 오이를 먹을 수 있다. · 음식은 대략 우리나라와 같으나, 대개 甘藷를 恒食으로 삼았다. 그곳의 산물로는 해물, 곡물, 채소 등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이 많았다. 석류(石榴), 감자(柑子), 굴(橘), 유자(柚子)는 더욱이 그곳 땅에 적합하였다.	『연원지』 - 『濟州漂人問答記』

그러나 <표 4> 순번 4와 5에서는 앞서 소개된 농작물과는 다른 명칭의 작물이 등장하는데, 우선 1706년 제주목사 송정규의 저술서인 『해의문견록』 가운데 『記琉球漂還人語』의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1662년(현종 3) 유구 오시마[大島]로 표류했다가 이듬해 돌아온 해남현 선비 金麗輝 일행(제주인 南麟 혹은 南仁¹⁵) 포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은 표류된 지 11일이 지난 (1662년) 10월 5일, 유구 大島에 상륙하였고, 당해 주민들에 의

15) 윤사동, 『增補耽羅誌』 第9, 漂船接送 異國問情, 『현종 계묘년(현종 4년, 1663)].

※ 윤사동이 제주목사 재임시(1765년 8월~1766년 6월) 편찬한 『증보탐라지』의 기록에는 김여휘가 등장하지 않으며, 동승했던 제주인 南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또한 『해의문견록』에 기재되어 있는 ‘牛毛’ 등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해 구호되었는데 먼저 흰죽과 粘酒가 지급된데 이어 ‘牛毛’라는 채소가 제공되고 있다. 해당 작물에 대해 “겉은 붉고 속은 희었으며, 삶아서 먹으면 그 맛이 마(薯蕷)와 비슷하니, 이 채소는 오래 굵은 사람에게 가장 알맞아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했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김여회의 표류 사례¹⁶⁾는 『해외문견록』의 저술시기와 44년이란 긴 시간차가 나는 것으로 보아 송정규는 이외 다른 문헌자료를 기반으로 글을 적어나간 듯싶다. 그리고 해당 글 말미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C)

(김)여회의 本錄을 살펴보면, 산천이나 물산에 대한 내용이 소략하여 매우 안타깝다. 이른바 牛毛라는 채소는 아마도 또한 番薯 종류인 것 같다. 稽含(중국 서평 때의 인물) 『南方草木狀』에서는 “甘藷는 薯蕷[마]의 종류이거나 혹은 芋[토란]의 종류라 하기도 한다. 뿌리와 잎은 芋와 같고 껍질은 붉고 속은 희다. 찌거나 구워 먹으면 맛이 薯蕷와 비슷하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백여 歲나 되는 것은 오곡을 먹지 않고 甘藷를 먹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여회가 먹은 것은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16) 김여회 일행 관련 표류기록은,

- 조선측 관찬사료로 『현종실록』 권7, 현종 4년(1663) 7월 5일 경오조; 『현종개수실록』 권9, 현종 4년(1663) 7월 6일 신미조; 『표인영대등록』 권2, 1663년 7월 13일; 『동문회고』 附編 권29, 漂風; 『변례집요』 권3, 漂差 附漂民 順付 刷還에도 실려 있으나 **이 모두 ‘牛毛’에 대한 내용은 없다.**
- 조선측 사찬사료로 18세기 송정규의 『海外聞見錄』, 윤사동의 『增補耽羅誌』 및 19세기 성해응의 『研經齋全集外集』,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 등이 있다. 또한 정성일이 그의 논문 『해남 선비 김여회의 유구 표류와 송환 경로, 1662~1663년』, 『韓日關係史研究』 제43집, 한일관계사학회, 2012)에서 밝힌 작자·연대 미상의 『金麗輝等漂海錄』도 존재한다. **이 중 『海外聞見錄』, 『研經齋全集外集』, 『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牛毛’ 혹은 ‘牛尾’라 일컫는 채소가 등장한다.**
- ① 成海應, 『研經齋全集外集』 권59, 筆記類, 『蘭室譚叢』 琉球國. “유구국에 정박할 당시 여회 등은 매우 굵주렸다. 섬사람들이 **우모(牛毛)**라는 채소를 주었는데, 겉은 붉고 속은 희었으며, 맛은 薯蕷[마]와 비슷했다. 泊于琉球國時 麗輝等甚飢 島人與牛毛菜 皮赤肉白 味如薯蕷.”
- ②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草木類 / 穀種, 『北蕃辨證說』. “현종 4년 계묘(1663) 南海縣 백성 김여회 등이 유구 大島에 표류되어 이르렀다. 일명 **우미(牛尾)**라 말하는 채소가 있었다. 겉은 붉고 속은 희었으며, 찌서 먹으면 맛이 薯蕷[마]와 비슷했다.”
- 일본측의 쓰시마 기록인 『(國元)毎日記』 寛文 3년(1663) 5월 27일, 28일, 29일 기사에도 실려 있다.

위의 글을 보면 제주목사 송정규는 표류인 김여회가 유구에서 전문한 산천 및 물산에 대해 기재된 바가 매우 적어 안타까움을 토로함과 동시에 이들 일행이 유구 현지인에게 救護 양식으로 제공받았던 ‘牛毛’에 대해 소개하며, 이것은 아마도 ‘甘藷’일 것이라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다면 1662년 표류인 김여회가 맛보았던 牛毛와 1706년 송정규가 이와 같은 작물로 이야기한 甘藷는 과연 유구의 어떤 농작물 지칭하는 것일까?

甘藷는 일명 고구마로서, 해당 작물은 이 당시 일본으로부터 들여오기 전인 까닭에 표류인을 비롯한 조선인들에게 있어 매우 희귀한 정체불명의 관심 작물이었다. 이에 제주목사 송정규도 중국의 植物誌를 참고하면서까지 ‘牛毛’의 정체를 밝히려 하였으며, 이것이 곧 甘藷라 추론하고 있다.

그럼 1662년 유구로 표류하였다 생환된 김여회가 소개한 고구마[甘藷]는 언제 조선 및 제주도에 도입될 수 있었을까? 이를 대략 살펴보면 재미통신사 일행이 쓰시마에 이르렀던 1763~1764년 무렵 통신사 조엄이 동래부에 처음 도입하였으며, 이후 비슷한 시기인 1765~1766년 동래부사 강필리도 왜관을 통해 고구마를 도입해 시험재배 및 전파하였다고 전해진다.¹⁷⁾ 고구마가 제주도에 정식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1765년(영조 41) 윤시동이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시점으로, 『승정원일기』에는 ‘제주목사 윤시동이 (부임해) 갈 때 동래부사[강필리]와 연락하여 고구마 종자를 얻어왔다’라는 기록과¹⁸⁾ ‘윤시동이 제주도에 갈 때 조엄이 종자를 보내주어 심었다’라는 기록이¹⁹⁾ 등장한다. 또한 강필리의 저서인 『甘藷譜』의 서문에 ‘1765년 탐라에도 종자를 보냈다고 적고 있다.²⁰⁾ 이를 통해 제주도의 고구마 전래는 해당 작물을 조선에 도입한 두 인물인 조엄²¹⁾과 강필리로 하여금 구황작물로서의 제 역할을 해줄 것

17) 오인택, 『조선후기 고구마 전래와 정착 과정』, 『역사와 경계』 97, 경남사학회, 2015, 175쪽.

18) 『승정원일기』 권70, 영조 41년(1765) 8월 13일 병진조.

19) 『승정원일기』 권70, 영조 43년(1767) 4월 19일 임자조.

20) 정형지, 『조선후기 농서를 통해 본 고구마 재배기술』, 『梨花史學研究』 第33輯, 梨花史學研究所, 2006, 122쪽.

21) 趙巖, 『海槎日記』 권5, (1764년) 六月十八日 戊戌. “지난해 左須奈浦에 처음 도착했을 때 甘藷를 보고 數斗를 구해서 釜山鎭으로 보내어 종자를 삼게 하였는데, 回路의 지금에 또 이것을 구해서 장차 東萊의 校吏輩들에게 줄 예정이다. 일행 중에서도 그것을 얻은 자가 있으니 이것들을 과연 다 살려서 우리나라에 널리 퍼뜨리기를 文益漸이 목면을 퍼뜨린 듯 한다면 어찌 우리 백성에게

을 기대하며 제주목사로 부임되는 윤시동에게 전해져 보급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구마가 조선 및 제주도에 전래되기 이전, 김여휘 이외의 또 다른 표류 제주인들의 기록에서 고구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732년 정운경의 저술서인 『탐라문견록』에는 1726년(영조 2) 유구로의 표류 후 중국 북경을 거쳐 1728년(영조 4) 고향으로 돌아온 金日男·夫次雄 등 9명 일행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들 표류 제주인이 유구에서 직접 관찰한 고구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취재해 적고 있다.

D)

덩굴로 자라는 채소가 있는데, 한번 덩굴이 지면 무성하게 몇 이랑씩 뻗어나간다. 계절마다 땅에 심어 서너 뿌리가 나온다. 뿌리는 蘿藦[무]와 비슷하다. 큰 것은 술잔만 하다. 맛은 달고 물러 사람이 먹기에 가장 좋다. 반드시 껍질을 벗겨 썰서 먹으며, 끼니를 대신한다. 여기저기 심는데, 덩굴 하나에서 몇 백 뿌리를 거둘 수 있어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는다. 속명은 林委라고 한다.

위의 D) 기록을 보면 고구마 색깔 등이 외형적 묘사는 찾아볼 수 없으나, ‘맛은 달고, 물러 사람이 먹기 좋다’라든지, ‘껍질을 벗겨 썰서 먹는다’라든지, ‘덩굴하나에서 많은 뿌리를 거둘 수 있다’ 등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는 앞서 김여휘가 소개한 동일의 유구 농작물, 즉 甘藷[고구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 명칭에 있어 김여휘는 ‘牛毛’라 칭한 반면, 김일남·부차웅 등은 ‘林委’라 하고 등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고구마가 유구 방언으로 ‘우무(ウム)’인 것으로 보아²²⁾ 표류 제주인들이 지칭한 ‘우모’ 혹은 ‘임

큰 도음이 아니겠는가. 또 동래에 심은 것이 만약 덩굴이 잘 뻗는다면 제주 및 다른 섬에 재배함이 마땅할 듯하다. 듣건대, 제주의 土俗은 馬島[대마도]와 많이 닮은 듯 하다고 하니 그 甘藷가 과연 잘 번성한다면, 제주도민이 해마다 손을 빌리는 것과 羅倉의 배를 띄워 곡식을 운반하는 폐단을 거의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토질이 맞는지 아직 확실하지 못하고 土産이 모두 다르니 과연 그 번식이 뜻대로 될지 어찌 기필하겠는가.”

※ 19세기 쓰여진 金義淳, 『山木軒集』 권14, 「吏曹判書贈左贊成趙公諡狀」과 趙寅永, 『雲石遺稿』 권15, 「王考吏曹判書贈左贊成永湖府君家狀」의 내용 가운데에는 통신사 조엄이 쓰시마에 다녀 오며 구해 온 甘藷 종자를 제주도에 보냈는데 제주도의 土産이 倭島와 유사하여 그것과 맞아 種果가 점점 번성하여 혹 칭하길 ‘趙藷’라 이룬다고 적고 있다.

위'는 이와 유사한 발음으로 들려지기도 하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며 향후 보다 면밀한 고증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牛毛'·'林委'라 일컬어졌던, 소위 '甘藷'라 칭하는 신기하고도 기특한 유구의 농작물은 1763~1764년 계미통신사 일행 및 왜관을 통해 쓰시마에서 동래부로 도입되기 100여 년 이전에 이미 표류인 김여휘(제주인 남인 동승) 등에 의해 소개되고 있었다. 또한 30여 년 이전 김일남·부차웅 등에 의해 또 한 차례 유구의 고구마가 소개되어지고 있다. 이렇듯 비록 이들에 의해 고구마가 제주도 및 조선에 심어지진 못하였으나, 해당 작물의 실체를 직접 견문하고 맛본 최초의 조선인임에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이 생환된 후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전달해 준 고구마에 대한 정보는 해당 작물을 도입·전파하는데 관심을 유발하는 촉진제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대외정세

조선 정부는 이국으로부터 표류되었다가 송환되어 온 漂還人[漂人] 및 조선으로 표도해 온 이국인들을 상대로 問情 등의 공식적인 조사 및 기록을 실시하였다. 이들에 의한 정보는 2, 3차의 간접 정보가 아닌, 정제나 윤색되지 않은 현장적이며 직접적인 진술 정보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컸다. 漂還人인 경우 성명, 거주지, 신분, 나이 등의 기본 정보를 비롯, 표류일시 및 경위, 표착지의 풍토, 현지인들의 용모·풍속·의식주, 송환과정(이동거리, 체류일자, 견문내용) 및 이국에서의 구조조처 사항 등을 물었다. 그리고 조선으로 표도한 이국인에 대해서도 기본 정보(국적 및 출신지, 성명, 신분, 나이), 출항목적, 소지물품, 표류과정, 출신지역의 정세·인물·제도·관원, 출신지역의 성곽·군사·무기·지세, 출신지역의 농업 등 제반 산업기술 형편, 항해

22) 고구마는 琉球 방언으로 우무(ウム)이고, 奄美 방언으로는 한시(ハンシイ)이다. 와타나베 미키(渡邊美季), 「朝鮮人漂流民の見た『琉球』-1662-63年の大島-」, 『沖繩文化』第46卷 1号, 『沖繩文化』編集所, 2012, 18쪽.

※ 고구마가 유구 방언으로 '우무'라 칭하는 것으로 보아, 김여휘는 이를 차용해 '牛毛'로 적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 타국 전문내용, 기타 의문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심문하였다.²³⁾

이렇듯 公的으로 官에 의해 작성된 표류기록 대부분은 問情記로서, 정부가 파악하고자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표류·표도인들에게 답을 구하는 형식을 띠었다. 그리고 표류·표도인들의 전문을 토대로 제3자인 지식인들이 사적 측면에서 작성한 표류기록 또한, 표류 당사자의 개별적인 감정 및 체험보다도 그들이 수집하고자 했던 외부세계의 정황 등을 선택적으로 탐문하여 기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위와 같은 표류기록은 비록 官과 지식인의 일방적인 입장에서 서술된 것이지만, 당시 조선 정부와 지식인이 표류·표도인의 전문을 통해 주변국가의 어떠한 대외정보를 취득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관심과 동향을 읽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된다. 더 나아가 그 문정 사항은 당시 조선이 어느 정도의 대외정세를 파악하고 있으며, 그 판단능력은 어떠한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국가별·시대별로 조선 정부와 지식인들이 표류 제주인 및 제주 표도 이국인을 통해 수집하고자 하였던 각국의 대외정세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살펴봄은 물론, 그 관심의 추이 또한 들여다보고자 한다.

(1) 중국에 대한 대외정세

조선측 표류기록에서 중국의 정치적 동향에 두드러진 관심을 드러냈던 시기는 17세기를 전후로 한 시점이다. 해당 시기 중국은 명·청 교체라는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에 맞물려 있었다. 근세시기 조선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중국 명나라를 중심으로 책봉체제를 전제로 한 국제질서가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의 정세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親明정책을 고수하던 조선은 두 차례의 호란으로 어쩔 수 없이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게 되었고, 조선 조정을 비롯한 지배층 사이에서는 尊明義理를 바탕으로 한 北伐論을 내세우는 등 청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명나라는 결국 이자성의 난 발발로 멸망되었고, 1644년 청

23) 반윤홍, 「조선 후기 비변사의 국외정보 파악 양상」, 『韓國史學報』 제20호, 고려사학회, 2005, 114쪽.

나라가 중원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복건성 등 중국 남쪽에는 명조의 잔여세력들이 남명정권을 수립, 명나라 재건을 위해 항쟁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그 정세가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었다. 이처럼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던 시기, 제주도는 중국 강남지방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음에 따라 당시 중국의 대내외적 동향을 보다 빨리 접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선중기 문신인 이단상이 제주목사로 떠나는 이인(재임시기: 1667년 6월~1669년 9월)에게 제주도가 중국 강남지역과 가까우니 한라산에 올라서 보면 중국 강남과 해외의 여러 나라들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국 강남의 한족 소식에 관심 가져줄 것을 부탁하는 글을 통해 증빙된다.²⁴⁾

한편 제주도는 위와 같은 지리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중국인, 특히 남방지역 출신의 중국인들이 표도되어 오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이에 조선 정부는 제주 표도 중국인들의 입을 통해 명말청초의 혼란기에 일어난 이자성의 난을 비롯, 청나라의 불완전한 통일과 남명정권의 동정, 삼변의 난 봉기와 진압 후의 상황, 대만의 정세 등 당시 중국 측의 대내외적 동향 및 변화 양상 등의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1683년 反淸기조를 내세우며 끝까지 항거하던 대만의 정씨정권을 평정한 청조는 1684년 해금령을 해제하여 민간선박의 출항을 허가하기에 이르는데, 이처럼 조선 정부는 급변하는 중국의 국내의 해상무역 활동 실태 또한 제주 표도 중국인들을 통해 구체적 정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주 표도 중국인 및 중국 표류 제주인들을 상대로 한 질의응답 속 내용 고찰을 통해 당시 조선 정부가 얻고자 하였던 중국측 대외정보는 과연 무엇이었으며, 어떠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가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익태(재임시기: 1694년 7월~1696년 9월) 제주목사가 재임기에 저술한 『지영록』에는 총 13건의 제주도에서 발생되었던 표류·표도관련 기록이 기재되어있다. 이 중 표도 중국인 관련 사례만 무려 9건²⁵⁾을 차지하는데, 이는

24) 李端相, 『靜觀齋集』 卷14, 「寄濟州牧使李侯序」.

25) ① 1652년 명나라 南京 蘇州 상인 苗珍實 등 213명 중 28명 생존[溺185], ② 1667년 명나라 福建省 상인 林寅觀 등 95명, ③ 1670년 廣東, 福建, 浙江 상인 沈三 등 65명, ④ 1687년 청나라 상인 顧如商 등 70명 중 65명 생존[溺4, 病1], ⑤ 1688년 廣東省 潮州府 사람 劉鳳 등 63명 중 15명

곧 당시 그의 주요 관심사가 중국의 정세 파악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지영록』 내 1652년, 1667년, 1670년에 제주도로 표도해 온 중국인 관련 기록에는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등록』에 실려 있지 않은 문정기록이 기재되어 있다. 먼저 1652년 명나라 남경 소주 상인 苗珍實 일행에 관한 기록인 『漂漢人記』에는 이자성이란 인물의 정체, 명나라의 存否, 중국의 남방·광둥·섬서·산둥·산서·사천·운남 등의 사정을 꼼꼼히 캐어 물음으로써 명·청 교체기의 중국 정세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구국을 비롯한 紅毛賊[紅毛國]의 소식 또한 이들을 통해 듣고 있다. 이어 1667년 표도한 명나라 복건성 상인 林寅觀 등 95명에 대해서는 명말 청초의 정국 상황 및 전쟁 가능성에 대해 묻고 있다.²⁶⁾ 또한 1670년 정의현 말등포에 표도해 온 광둥, 복건, 절강 상인 沈三 등 65명에 대한 문정에서는 1662년 명나라 장수 정성공이 抗淸을 위해 근거지로 삼았던 대번국[대만]의 실정을 묻고, 大明의 존립을 확인하고 있다.²⁷⁾ 그리고 중국의 판도가 완전히 청나라로 넘어가 있던 시점인 1687년, 정의현 토산포에 표도한 남경 소주 등지의 상인 顧如商 일행에게는 三藩之亂과 해당 亂의 진압과정, 대만의 항복 등 중국 통일을 완성한 청조의 대내외적 상황 등을 심문함으로써, 안정화된 중원의 동향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²⁸⁾

한편 이후(1688~1693년) 제주도로 표도되어지는 중국인 사례 5건에 대한 『지영록』의 기록을 보면 앞선 내용과 달리 특기할만한 문답 없이, 표류 경위 및 적재물품, 송환 사항에 대해서만 소략하게 기재해 놓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제주목사 이익태가 관심 및 그 필요성을 갖고 중국 정세에 대해 수집하고자 한 시기가 바로 ‘명·청 교체라는 혼란스런 대외적 상황이 조선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 몰랐던 시기’라는 점을 다시금 시사해 준다.

생존[溺48], ⑥ 1688년 江南省 상인 楊自遠 등 75명, ⑦ 1690년 南京 徽州人 程勝遠 등 45명, ⑧ 1691년 福建省 陳坤·薛子千 등 33명, ⑨ 1693년 江南 江寧府 사람 程乾順 등 32명 중 27명 생존 [溺5]

26) 李益泰, 『知瀛錄』 중 1667년 명나라 福建省 상인 林寅觀 등 漂流記.

27) 李益泰, 『知瀛錄』 중 1670년 廣東, 福建, 浙江 상인 沈三 등 漂流記.

28) 李益泰, 『知瀛錄』 중 1687년 청나라 상인 顧如商 등 漂流記; 『비변사등록』 권41, 숙종 13년(1687) 5월 15일.

(2) 일본에 대한 대외정세

조선전기 조선은 일본에서 송환된 자국 표류인을 통한 구체적인 對日 정보의 수집 노력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표 2>의 표류 조선인 관련 표해록 현황을 보면, 총 11건의 조선전기 표해록 가운데 유구와 중국 관련 표해록은 5건과 4건인 반면, 일본 관련 표해록은 2건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동일시기 제주인의 표류 발생 수치(중국 19건, 일본 13건, 유구 4건)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대조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조선 정부가 일본에 파견한 조선 사절이나 쓰시마[對馬] 측으로부터, 혹은 평화통교자로 빈번히 내항하는 일본인으로부터 풍부한 일본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골칫거리였던 왜구문제가 어느 정도 종식되어가던 당시 대외실정에 기인한다.

하지만 이 같은 소극적인 對日 정보의 습득 의지는 1510년 삼포왜란을 계기로 바뀌게 된다.²⁹⁾ 즉, 16세기 일본이 연이어 일으킨 삼포왜란을 비롯한 사랑진왜변·을묘왜변·임진왜란 등으로 국가 존립의 위협을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계심과 불안으로 일본의 대내외 정세에 예의주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임란 이후인 16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조선 정부의 기강 해이 때문인지 대일정보 습득 노력이 별로 부각되지 않는다. 더욱이 당시 일본 측의 대조선 통교권을 장악하고 있던 쓰시마가 조선과의 통교 권익을 독점하고자 일본 諸 세력이 표류 조선인 송환의 중개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정보 습득이 제한되어 갔다.

17세기에 접어들어 일본은 쇄국체제의 대외정책을 취함으로써 종래 지방 영주들에게 분산되어 있던 외교·무역에 관한 권한을 막부에 집중시켰다. 이에 조선 표류인 송환에 있어 對馬島主가 일본 표착지의 영주로부터 표류인을 인수받아 조선에 대항 송환하였던 종래의 체제에서 변경되어, 1640년 이후부터는 쓰시마[對馬]를 제외한 일본 각지에 표착한 조선인들은 우선 막부

29) 민덕기,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교섭』, 경인문화사, 2010, 251쪽.

의 직할도시인 나가사키[長崎]로 보내져 조사·보호된 다음, 對馬藩으로 인도된 후 조선에 송환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일본으로 표류되었던 대부분의 제주인들은 九州지역의 五島列島³⁰⁾로 표착하였기 때문에 송환시 특이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한 표착지에서 나가사키로 이송되어졌다. 이에 표류 제주인들은 의도치 않게 당시 각국의 상선이 드나들던 국제항으로서, 변화를 구가하던 나가사키의 이색적인 풍물과 마주하게 된다. 이후 제주도로 생환된 이들이 들려준 나가사키의 모습은 아래의 표류기록 속 내용과 같다.

E-1) (1706년 일본 五島 표류: 李繼敏 등 7명)

강희 45년(1706, 숙종 32) 6월, 제주의 서원 이계민 등 7명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와서 경위를 말했다. … 長崎는 왜나라 말로 南加沙伊라 부른다. 정박해 있는 중국 상선들의 촘촘한 돛대가 마치 麻와 같아서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였다. … 표류인들은 2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長崎에 머물렀다. … 사방이 모두 부두여서 배를 대기에 매우 편했다. … 江南館에는 대개 90채의 집이 있는데 집들은 수백 보에 걸쳐 있고 둘레에 큰 성을 쌓았다. … 江南寺는 강남관의 우측에 있으니, 상선이 너무 많아 강남관이 모두 수용할 수 없으면 나누어 江南寺에 거처토록 했다. 安南館은 북쪽 물가에 있는데 또한 30여 채로 이루어졌다.³¹⁾

E-2) (1723년 일본 五島 표류: 李己得 등 25명/제주인 17명 포함)

어느 날 밤에는 대포소리가 하늘을 진동하므로 몹시 괴이하게 생각했다. 아침에 들으니 阿蘭陀[네덜란드]의 장삿배가 와서 정박했다고 한다. 한낮에 배가 있는 곳에 가서 보니 강의 너비가 10리쯤 되는데 큰 배 2척이 강을 가로막고 왔다. 배는 아래 위 2층이었고, 비단 돛을 가로로 여섯 장을 걸었다. 한 면으로 된 天旗는 장대만 15장이 넘었으니 그 배의 장려함을 알 수 있겠다. … **절강과 복건 등의 상선도 때 없이 왕래했다. 長崎에서 통상하는 자가 일곱 나라라고 했다.**³²⁾

30) 필자가 산출한 조선시대 일본으로 표류해 간 제주인(207건)들의 표착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불명이거나 기타인 22건(10.7%)을 제외하면 五島 92건(44.4%)>對馬 31건(15.0%)>肥前 20건(9.6%)>薩摩 17건(8.2%)>長崎 8건(3.9%)>壹岐·鹿兒島·平戶島 각 5건(7.2%)>筑前州 2건(1.0%) 순으로 확인된다.

31) 宋廷奎, 『海外聞見錄』 중 『記日本漂還人語』.

E-3) (1723년 일본 五島 표류: 金時位 등 26명)

하루는 통사가 우리를 이끌고 가서 南蠻館을 보여주었다. 그 사람들은 눈이 깊고 코가 높았다. 눈동자는 노랗고, 코는 가늘고도 길었다.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다. 검은 옷을 입었는데 肢體가 몹시 길고 컸다. … 33)

일생을 조선의 포구와 포구 사이를 오가며 바닷길을 누비던 제주인들이었지만, 동·서양의 수많은 엄청난 크기의 선박들과 그 주변으로 2~3층 규모의 건물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長崎의 항구 풍경은 실로 놀라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더군다나 중국江南館, 안남安南館을 비롯한 네덜란드南蠻館 등 여러 나라들과 상호 통상하는 모습은 표류 제주인들에게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이들의 이야기는 조선의 변화와 개방의 기회를 꾀하고 있던 18세기 당대 실학자들에게 자극제로 작용하였으며, 바다를 통한 통상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발판이 되었다.

한편 『탐라문견록』 중 1723년 일본 五島로 표류해 간 金時位 일행의 기록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있다. 즉 通事로부터 ‘南蠻이 제주도를 치려고 했으나 바닷길이 익숙지 않아 일본에 군대를 청해 길잡이를 삼고자 하였지만, 일본이 끝내 허락하지 않아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것’과 ‘해외 여러 나라 가운데 병력의 강성함이 南蠻보다 더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된다. 해당 이야기의 사실 여부는 이 책 이외의 관련 기록을 찾아 볼 수 없어 증명해 낼 수 없지만, 표류 제주인들이 전달해 준 이 같은 정보는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제주도 및 중앙 관리로 하여금 제주 연근해 海防의 강화 조치를 유발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3) 유구에 대한 대외정세

1471년(성종 2) 성종의 명을 받아 撰進된 申叔舟의 『海東諸國記』 『琉球國紀』에는 “유구국이 우리나라와 거리가 가장 멀어 그 상세한 것을 규명할 수

32) 鄭運經, 『耽羅聞見錄』 중 第7話.

33) 鄭運經, 『耽羅聞見錄』 중 第8話.

없으므로 우선 朝聘 및 名號의 차례만을 기록하여 후일의 고증을 기다린다.”라고 적고 있다. 조선전기 조선과 유구 간에는 양국의 사신파견을 비롯, 피로·표류인 송환 등의 교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 유구에 대한 인식과 정보는 다른 대외국가(중국·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해동제국기』 서두에는 「海國諸國總圖」를 비롯하여 총 10점의 지도 가운데 「유구국도」도 실려 있는데, 이러한 조선의 역사·지리서 상의 유구국에 관한 지도 등장은 환중국해 교류에서의 유구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어지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하겠다.

또한 이 당시 유구에 대한 조선 정부의 적극적 관심 표명은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게 유구로부터 생활되어온 표류 조선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견문한 바를 『조선왕조실록』에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도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³⁴⁾

실록 속 내용에는 표류 제주인들의 표류 경위 및 송환 노정뿐만이 아니라, 유구의 지리와 습속, 언어·의복·제도·기후와 농경·산물·대외교역 상황 등 다방면에 걸쳐 표류인들이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고 체험한 정보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특히 중국·일본으로 표류된 경우에 비해 고국으로의 송환까지 다소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장기간 체류과정에서 획득되어진 견문 내용들은 비교적 정확성을 지녔다. 이러한 점에서 유구 현지 농작물의 파종 및 재배, 수확에 관한 정보는 매우 사실적이라 할 수 있다.

1546년(명종 1) 유구에서 돌아온 표류 제주인 박손의 보고에는 “유구의 관복이 중국과 같아든가, 특정 유구인을 南京에 유학시켜 중국의 학문과 어학을 익히게 하여 중용한다든가, 망궤례를 행하여 중국에 대한 사대를 지성으로 한다.”는 등의 정보는 조선으로 하여금 작은 나라인 유구를 교린 대상으로

34) ①1450년 만년·정록 등 표류기(『단종실록』 권6, 단종 1년(1453) 5월 11일); ②1456년 양성·고석수 등 표류기 및 ③1461년 초득성 등 표류기(『세조실록』 권27, 세조 8년(1462) 2월 16일); ④1477년 김비의·강무·이정 등 표류기(『성종실록』 권105, 성종 10년(1479) 6월 10일. “표류했던 제주사람 김비의·강무·이정 등 세 사람이 유구국으로부터 돌아왔는데, 지나온 바 여러 섬의 풍속을 말하는 것이 매우 기이하므로, 임금이 흥문관에 명하여 그 말을 써서 아뢰라고 하였다. …”); ⑤1546년 박손 등 표류기(『명종실록』 권3, 명종 1년(1546) 2월 1일)

으로 지속적으로 설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³⁵⁾ 이처럼 조선 전기 정부는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구로부터 송환된 표류 제주인들을 통하여 유구의 자연환경 및 유구인들의 실생활 모습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접어든 시점의 『조선왕조실록』에는 표류 제주인에 대한 공적인 측면에서의 표해록과 같은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조선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유구가 일본에 속국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그 관심이 줄어들어 버렸다고 추측된다.³⁶⁾

하지만 1609년 사츠마번[薩摩藩]의 침략에 의한 유구국이 일본으로의 종속³⁷⁾은 당시 유구로 표류해 간 조선인과 조선으로 표도해 온 유구인들의 송환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구-일본과의 관계 및 유구 내 정세를 표류 제주인들로부터 듣고자 하였다.

1662년(현종 3) 제주도에서 육지로 귀로 도중, 유구의 오시마[大島]로 표류하였다 송환되어 온 김여휘 일행에게서 조선 정부는 아래 F-1)과 같은 유구의 실정을 보고 받고 있다. 한편 이후 1706년(숙종 32) 편찬된 F-2)의 『해외문견록』을 보면, 김여휘가 이러한 유구의 일본 복속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유구를 떠나 일본 薩摩州를 거쳐 송환되는 과정에서 조선인 통사 李國과의 대화로 말미암아 해당 정보를 듣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1)

풍랑에 표류되었던 김여휘 등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왔다. 여휘 등은 해남 사람으로 흉년으로 인하여 제주에 들어가 밥을 빌어먹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배 안에서 10여 일을 표류하는 동안 기갈이 심해 4명은 죽고 나머지 28명이 표류 끝에 작년 10월 한 섬에 닿았는데, 그곳 주민 모두가 장발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는 미움을 가져다가 구제하고 사흘을 머물게 했다가 **관부로**

35) 민덕기,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교섭』, 경인문화사, 2010, 255쪽.

36) 하우봉, 「제6장 문물 교류와 상호 인식」, 『朝鮮과 琉球』, 아르케, 1999, 292쪽.

37) 1609년 유구가 일본으로 복속되었다는 사실이 조선에 전해진 것은 이듬해인 1610년으로, 정유제란 때 포로로 잡혀 갔다 돌아온 피로인의 진술에 의해서였다(『광해군일기(중초본)』 권28, 광해 2년(1610) 4월 20일 을미조; 『광해군일기(중초본)』 권36, 광해 2년(1610) 12월 26일 정유조).

입송하였는데 거기에는 장발자와 삭발한 자가 섞여 살고 있었다. 거기는 유구에 소속된 섬으로 大島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薩摩의 왜인들이 빼앗아갔다는 것이다.³⁸⁾

F-2)

김여회가 조용히 물었다. “일본은 어느 나라와 이웃하며 어느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소?” (通事) 李國이 대답하길, “지난 임진년 7년 동안 전쟁을 하였으나 끝내 이로운 것이 없었기에 이 나라 사람들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소. 그때 조선 땅에서 불리해지자 곧 군대를 돌려 유구를 쳐서 항복을 받아 대대로 조공을 받고 있소.”³⁹⁾

해당 사실은 1698년 일본 薩摩 屋久島로 표류해 간 제주인 강두추·고수경 일행의 기록⁴⁰⁾ 및 1720년 일본 筑前州로 표류한 원구혁 일행의 기록⁴¹⁾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4. 선진 기술 및 지식의 습득

1) 수차 및 병기 제작기술

조선 정부는 漂還人 및 漂到人들로 하여금 이들이 이국에서 見聞하여 배워오거나 가져온 선진 기술을 통해 새로운 문물을 제작, 전파하는 모습이 표류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우선 1487년(성종 18) 추쇄경차관으로 제주도에 부임했다 이듬해 부친상을 당해 고향으로 향하던 중 중국 절강성으로 표류해 간 최부는 송환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水車 제작법을 배워와 조선에 그 기술을 전파했다. 송환과정에서 절강성 소흥부를 지날 때 수차를 이용해 논에 물을 대는 모습을 눈여겨보았던 최

38) 『현종개수실록』 권9, 현종 4년(1663) 7월 6일 신미조.

39) 宋廷奎, 『海外聞見錄』 중 『記琉球漂還人語』.

40) 鄭運經, 『耽羅聞見錄』 중 第5話.

41) 鄭運經, 『耽羅聞見錄』 중 第13話.

부는, 일행의 호송을 맡은 松門衛千戶 傅榮에게 수차 제작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하였고, 간곡하고 끈질긴 요청 끝에 수차의 제작 원리와 이용 방법을 배우게 된다.⁴²⁾ 이후 1488년(성종 19) 6월 조선으로 돌아온 최부는 성종의 재촉에 의해 喪中임에도 불구하고 2달 여 만에 수차를 만들어 바쳤다.⁴³⁾

이후 1542년(중종 37)에 유구에 표류했다가 중국을 경유해 4년 만에 돌아온 제주인 박손에 대한 표류기록에서도 수차 기술습득에 대한 내용을 엿볼 수 있다.⁴⁴⁾ 박손은 송환중인 福建道에서 수차제도를 익혀왔으며, 이에 대해 보고 받은 조정에서는 戶曹로 하여금 제작하여 各道에 보급하자고 건의하였다. 이렇듯 표류 제주인들을 통한 수차제도 기술 소개와 보급은 農本主義를 근간으로 삼고 있던 조선 정부에 있어 매우 유용하고도 획기적인 정보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이들이 전파한 수차는 실용화로의 발전적인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즉, 중국 강남 농업의 주요 농기구였던 수차는 저습지가 많고 물이 풍부했던 중국의 농업 실상에는 안성맞춤이었지만, 1년 중 장마철에만 비가 집중될 뿐 하천수 자체가 부족한 환경인 조선의 실정에는 맞지 않았다. 그 결과 한반도의 이러한 기후와 지형 등의 자연 여건에 기인하여 표류인들이 전파한 수차는 조선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⁴⁵⁾

한편 1545년(명종 1) 제주 대정현에 표도해 온 중국인들에 의해 瀝靑⁴⁶⁾ 및 銃筒 제작법이 조선통사들에 의해 전습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기술의 습득을 위해 조선 관청의 匠人들로 하여금 직접 전수받게 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도 살필 수 있다.⁴⁷⁾ 이 때 표도된 중국인의 수는 326명으로, 瀝靑⁴⁸⁾ 및

42) 최부, 『표해록』 제2권, (1488년) 3월 23일.

43) 『성종실록』 권217, 성종 19년(1488) 6월 24일 병진조; 『성종실록』 권219, 성종 19년(1488) 8월 4일 을미조.

44) 『명종실록』 권3, 명종 1년(1546) 2월 1일 무자조; 『명종실록』 권3, 명종 1년(1546) 4월 23일 기유조.

45) 문준양, 『농업발달과 유교문화』, 『개정신관 한국사특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8, 294-295쪽.

46) 瀝靑이란 松脂에 기름을 섞어 만든 일종의 유기화합물로서, 유독가스나 성능 좋은 폭약[神煙毒火]을 만들기 위해 쓰여졌던 재료 중의 하나이다(丁若鏞, 『牧民心書』 『兵典』 6조, 제3조 修兵條의 내용을 참고).

47) 『명종실록』 권2, 명종 즉위년(1545) 11월 3일 임술조.

48) 魚叔權, 『裨官雜記』 第2卷.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瀝靑을 만들어 쓰는 방법을 몰랐다. 중종 때에 일찍이 칠장이[漆匠]를 중국에 보내어 배워 오게 했으나, 끝내 그 방법을 전해 받지 못하였다. 진사 趙晟이 唐本瀝靑方을 얻어 그대로 시험해 보았더니 옷칠과 차이가 없었다. 그 뒤에 또 福建에서

銃筒의 기술 전수를 위해 이들 중 해당 기술자들의 송환을 늦춰 세 편으로 나눠 들여보내지고 있다.

1627년(인조 5) 제주도로 표도해 온 네덜란드 출신으로서 병서와 화포제작에 능했던 벨테브레[박연]는 1652년(효종 3) 紅夷砲 제작법을 조선에 전수⁴⁹⁾하였으며, 1656년(효종 7)에는 새로운 체제의 鳥銃을 만들었다.⁵⁰⁾ 『효종실록』의 해당 기사에는 ‘이보다 먼저 蠻人[네덜란드인]이 표류해 와 그들에게서 조총을 얻었는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새로 제작된 조총은 아마도 1653년에 제주도에 표도한 하멜 일행이 가지고 온 조총에 도움을 얻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을 겪으며 왜구들이 사용했던 조총의 위력을 실감하였으며,⁵¹⁾ 병자호란시 후금이 지녔던 홍이포의 전술적 파괴력에 놀라있는⁵²⁾ 상황에서 성능 좋은 火器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인조 뒤를 이은 효종은 북벌정책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병기의 신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가 높았으며, 이에 제주 표도 네덜란드인이었던 벨테브레[박연] 및 하멜 등이 지녔던 기술과 그들이 가지고 왔던 무기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병기인 홍이포와 조총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중국으로 표류해 간 제주인 및 제주도로 표도해 온 중국인·네덜란드인들로 하여금 水車, 瀝靑, 銃筒, 紅夷砲, 鳥銃 등과 같은 중국을 비롯한 서양의 선진 농업 및 군수 물자 제작기술이 조선으로 전파, 습득되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류해 온 사람에게 물어 보고해서 그 능자가 점차 中外에 퍼졌다.”

49) 尹行愆, 『碩齋稿』 권9, 『海東外史』, “박연은 아란타인이다. 승정 원년 호남에 표류해 왔다. 조정에서는 훈련도감에 예측시켜 항왜와 표류해 온 한인을 거느리게 했다. 박연의 이름은 胡吞萬이다. … 병서에 재주가 있고, 화포를 매우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 박연은 나라를 위해 그 재능을 살려 드디어 홍이포 制를 전하였다. 기이한 일이다.”

50) 『효종실록』 권17, 효종 7년(1656) 7월 18일 갑자조. “새로운 체제의 鳥銃을 만들었다. 이보다 먼저 蠻人이 표류하여와 그들에게서 조총을 얻었는데 그 체제가 매우 정교하므로 訓局에 명하여 모방해서 만들도록 한 것이다.”

51) 『선조실록』 권45, 선조 26년(1593) 윤11월 28일 무신조. “우리나라의 弓矢는 본디 鳥銃에 대적하기 어렵거니와 …”

52) 『인조실록』 권34, 인조 15년(1637) 1월 22일 임술조. “오랑캐 장수 九王이 諸營의 군사 3만을 뽑아 거느리고 三板船 수십 척에 실은 뒤 甲串津에 진격하여 주둔하면서 잇따라 紅夷砲를 발사하니, 수군과 육군이 겁에 질려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2) 선박제도 및 조선술

여타 지역의 이국으로 표류해 간 조선인 가운데에서도 제주인들에게 있어 가장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은 제주인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선박과 그것의 건조기술이었다. 송정규는 『해외문견록』 속 『唐船制』에 중국의 船制에 대해 기록해 놓으면서 해당 말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G)

제주 舵工 李德仁은 安南에 표류했다가 돌아왔기에 절강과 복건의 바다에서 唐船의 제도를 익숙히 파악했다. 또 표류해 온 唐船들은 제주인들이 많이 보았기에 그들에게 唐船의 법식을 두루 물어 여기에 기록해 두니, 앞으로 일을 맡은 자들이 따라 만들 수 있도록 대비하러 함이다.⁵³⁾

상기의 내용을 보면, 제주목사 송정규가 이국으로 표류하였다 돌아온 제주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전문한 중국 선박의 제도 등을 직접 인터뷰한 후 이를 정리·기록해 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그가 인터뷰한 대상 가운데는 1687년 김대(태)황과 함께 안남으로 표류하였다 1688년에 귀환한 이덕인도 포함되어 있다.⁵⁴⁾ 안남으로 표류한 이덕인 등은 마침 안남에 와 있던 중국 상인 주한원 및 진건에 의해 송환되었는데, 송환되는 과정에서 광서→광둥→복건→절강 등 4개 省의 연안을 경유한 후 1년 3개월여 만에 제주도로 돌아오게 된다. 이때 함께 표류했던 일행 가운데에서도 고상영 등이 아닌 이덕인에게 송환과정 중에 전문한 중국 선박제도에 대해 물은 이유는 이른바

53) 宋廷奎, 『海外聞見錄』 중 『唐船制』.

54) 『海外聞見錄』 중 『記安南漂還人事』 말미에 보면 송정규가 1704년 제주목사로 부임 당시 鎭撫 김태황은 이미 죽고 없어 대신 이덕인 등을 불러 사정을 물어보았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사건은 1727년 역관 이제담(『주영편』 수록)과 1731~1732년 정운경(『탐라문견록』 수록)의 재취재에 의해 기록되게 되는데, 이때 취재 대상이 된 사람은 일행 중 해남 대문사에 글을 배우기 위해 송환하였던 고상영이었다.

그가 뱃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선박 및 바다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남달랐기 때문으로 보여진다.⁵⁵⁾

또한 『비변사등록』의 유구 및 중국 강소성 등지로 표류하였다 돌아온 제주인들의 문정별단에도 그들이 전문한 이국 선박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우선, 1738년 장사차 출항하였다 유구로 표류된 후 북경을 경유해 4년여 만인 1741년 回還한 강세찬 등 20명[21명 중 1명 溺死]의 문정별단에는 중국으로 향하는 유구 진공선의 제도가 잘 기재되어 있다.⁵⁶⁾ 그리고 1785년 중국 강소성에 표류하였다 이듬해에 송환되어 온 이응춘 등 12명의 문정별단에도 송환되는 과정 중 눈여겨 본 중국 선박제도에 대해 진술되어 있다.⁵⁷⁾

한편 조선 초부터 조선으로 표도해 온 중국 漂船을 기회로 삼아 그 체제의 모방을 주문하고 있음을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⁵⁸⁾ 또한 異國 漂船의 船制를 상세히 살펴 기록함은 물론, 우리나라[조선]의 선박 건조 시 이를 활용하자는 주장은 조선후기 정약용의 『목민심서』 가운데 ‘漂船 間情時 유념하여야 할 지방관의 처리지침 5조목’ 중 4번째 항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⁵⁹⁾

55) 李益泰, 『知瀛錄』 『金大瑛 漂海日錄』, “... 북쪽 육지로 향하려고 했지만, 바람이 거꾸로 불어 제어 하기가 어려워 제주로 돌아오려 했으나 배는 점점 서쪽으로 표류하며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가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이에 돛대가 기울며 키가 부러지고 얼어질 형편이 되어 결국 물에 빨려들게 되었다. 그런데 오직 타공 이덕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지런히 힘을 다해 草蓆을 묶어 船尾에다 묶어 연결하고, 배에 실은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던졌다. ...”

56) 『비변사등록』 권108, 영조 17년(1741) 2월 16일.

57) 『비변사등록』 권168, 정조 10년(1786) 1월 29일.

58) 『세종실록』 권124, 세종 31년(1449) 5월 6일, “처음에 중국 배 한 척이 표류하여 靈光郡 古道島에 이르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중국 배의 체제를 보고자 한 지 오래인데, 지금 우리 지경에 들어왔으니 이것은 하늘이 준 것이다.” 하고, 이조참의 金侁之를 보내어 그 체제를 보고, 그 양식에 의하여 배를 짓게 하매, ...”

59) 丁若鏞, 『牧民心書』 『奉公』 6조, 제6조 往役條, “漂流船에 대하여 정황을 물을 때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 다섯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좋은 것을 보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 작은 일이라도 그래야 한다. 오늘날 해외 제국의 船制는 기묘하여 운항에 편리하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였는데도 선제가 소박하고 고루하다. 매양 표류선을 만나면, 그 船制의 圖說을 각각 자세히 기록해야 할 것이니, 제목은 어떤 나무를 썼고, 뱃전 판자는 몇 장이고, 길이와 넓이 그리고 높이는 몇 도나 되며, 배 앞머리의 구부리고 치솟은 형세는 어떠하며, 돛대·선실의 창문 만드는 방법과 상앗대·노·키·돛의 모양은 어떠하며, 油灰로서 배를 수리하는 법과 翼板이 파도를 헤치게 하는 기술은 어떠한가 등의 여러 가지 묘리를 자세히 물어서 상세하게 기록하여 그것을 모방하도

그리고 9년 간(1840년 10월~1848년 12월) 제주도에서 유배를 지낸 김정희는 조선 근해로 출몰하는 異國 선박과 관련하여 “비록 저들의 선박제도를 모두 당장 배우기는 어렵겠으나, 돛을 다루는 한 가지 기술이라도 배워 실행에 옮길 수 있을 텐데 어느 누구도 마음 쓰는 자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다.⁶⁰⁾

19세기 제주목에서 조정으로 보고했던 啓聞인 『제주계록』에는 22건의 이국인의 제주도 표도 사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문정과정에서 반드시 來泊의 전말과 함께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의 船制 등에 대해 조사되었다. 이후 조사된 문정별단과 표도인들이 소지한 문서류(公文·照票·書信·冊子 등)의 模本, 卜物件記(卜物成冊), 船制圖形 등은 책으로 엮어 비변사에 올려 보내지고 있다. 이때 22건의 이국인 표도 사례 중 13건의 漂船⁶¹⁾에 대해 해당 선박의 구조, 길이, 너비, 두께, 좌우 杉板의 수, 칸막이 수, 돛대 및 돛포의 길이, 배의 전·내면에 새겨진 명문/모양 등을 자세히 기재해 놓고 있다. 그 기재 내용을 보면, 표도 일본인이 승선했던 船制의 경우 대체로 이물(배의 앞머리)이 뾰족하고, 고물(배의 뒷부분)이 넓으며 돛대 하나를 세웠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 청나라 선제는 앞뒤가 평탄하고, 앞은 낮고 뒤는 약간 높은 경우가 많은 ‘前後平底’ 및 ‘前底後高’로 묘사되고 있는데, 공통점은 모두 돛대 셋을 세웠고, 가운데 돛대는 가장 높다고 하였다.⁶²⁾

이렇듯 표류 제주인들이 표류-송환과정 중 접하게 되는 이국선의 제도 등은 바다를 주무대로 활동하였던 그들에게 있어 호기심과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체험으로 선박 건조술 및 항해술에 대해 기 습득하고 있었던 표류 제주인들은 여타 지역의 표류인들과 다른 남

록 해야 할 것이다.”

- 60) 金正喜, 『阮堂先生全集』 권3, 張34 『與權彝齋 敦仁 三十二』
 61) ① 『제주계록』 도광 28년(헌종 14, 1848) 5월 초2일; ② 同書 합종 원년(철종 2, 1851) 3월 25일; ③ 同書 합종 2년(철종 3, 1852) 12월 초6일; ④ 同書 합종 3년(철종 4, 1853) 8월 11일; ⑤ 同書 합종 8년(철종 9, 1858) 8월 11일; ⑥ 同書 동치 6년(고종 4, 1867) 10월 21일; ⑦ 同書 동치 6년(고종 4, 1867) 10월 29일; ⑧ 同書 동치 6년(고종 4, 1867) 11월 15일; ⑨ 同書 동치 10년(고종 8, 1871) 4월 초3일; ⑩ 同書 동치 11년(고종 9, 1872) 5월 12일; ⑪ 同書 광서 8년(고종 19, 1882) 3월 21일; ⑫ 同書 광서 9년(고종 20, 1883) 7월 초4일; ⑬ 同書 광서 10년(고종 21, 1884) 윤5월 초3일.
 62) 고창석, 『19세기 외국인의 濟州漂到』,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249쪽.

다른 관찰력으로 전문가적 입장을 견지하여 이국선 바라보았을 것이다. 이에 표류 제주인들이 습득해 온 이국선의 船制 등은 전통 한선을 개선하고, 새로운 한선을 제작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요컨대 동아시아 바다길의 길목에 위치하였던 제주도는 이국인들의 주요 표착지였음에 따라 좀처럼 이국선을 접할 수 없었던 조선 정부를 비롯한 지식인에게 이국선 및 그 제도에 대한 탐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제주도로 표도해 온 이국 漂船을 계기로 당시 동아시아 해역을 누비며 국제 교역을 행했던 異國船의 선진 조선술과 항해술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18세기 이후 성리학의 사상적 각성에 의해 등장한 ‘실학’이라는 학문적 기반 위에서 보다 활발히 진행·촉구되었다.

3) 외국어 구사 능력

통상적으로 조선인이 이국으로 표류할 경우 혹은 이국인이 조선으로 표도될 경우, 이들을 심문 조사하기 위해 표류·표도인 국적의 언어 구사가 가능한 通事가 과전되었다. 하지만 조선 초 이 같은 제도가 미비했음에 따라 제주도에 표도해 온 이국인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인이 표도되어 올 경우, 官話지역에 속했던 산둥성이나 요동지역 출신의 중국인과는 어느 정도 소통하였으나, 제주도로 표도해 온 중국인들 대개가 官話가 아닌 중국 남방의 방언을 사용하는 남방계 중국인들⁶³⁾이었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데 더욱 어려웠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뱃사람이나 상인들로 비문자층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筆談 또한 장벽에 부딪혔다.⁶⁴⁾ 이러한 가운데 1672년(현종 13) 윤계가 제주목사가 되었을 때, 제주도로 표도해 온 중국인들의 심문을 위해 한학 점군관이 추가로 설치되었는데,⁶⁵⁾ 그 설치

63) 제주도로 표도해 온 중국인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남방지역 위치한 江蘇省의 蘇州府와 松江府의 上海 지역을 비롯, 福建省의 漳州府·泉州府·福州府 등지 출신이 많았다.

64) 원종민,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의 유형과 그 사회적 영향』, 『中國學研究』 제44집, 中國學研究會, 2008, 245-246쪽.

65) 『通文館志』 권1, 沿革 外任條.

연유에 대해서 이원조의 『탐라지초본』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H)

倭訓導를 설치한 것은 이미 오래되었으나, 漢學訓導는 없었다. 제주사람 李德山이 7살 때 중국에 표류되어 나이가 들어 비로소 돌아왔으니 능히 그 말을 해득하였다. 고로 만약 중국에서 표류해 온 배[漂船]가 있으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였다. 德山이 죽은 뒤에 다시 전수할 도리가 없었다. 목사 尹階가 부임시 데리고 온 譯學이 土人 가운데 총명한 자를 택하여 『老乞大』(중국어 학습서)와 『捷解新語』(일본어 학습서) 등을 가르쳤다. 왜학생과 더불어 부서를 병설하였다. 숙종 정묘년(숙종 13, 1687)에 제주사람 高尚永이 표류하여 安南에 이르렀는데, 5년이 지나서 돌아와 그 말을 전하였다. 그 후에 또 安南通事가 있었다.⁶⁶⁾

상기 내용을 보면 중국으로 표류하였다 중국말을 解得하게 된 표류 제주인 이덕산이 제주도로 귀환 후 제주 표도 중국인들의 통역을 담당하였으나, 그가 죽은 뒤 해당 역할을 수행할 인재가 없자 제주목사 윤계의 부임 후 그에 의해 한학 겸군관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글 말미에는 1687년(숙종 13) 안남[베트남]으로 표류해 간 제주인 고상영이 5년이 지나 귀국한 후 그 나라 말을 전했고, 그 이후에 安南通事가 생겼다고 서술해 놓고 있으나, 여기에는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 즉, 대부분의 표류기록에서는 1687년 9월 고상영은 김대(태)황, 이덕인과 함께 육지로 출항 중 대풍을 만나 안남으로 표류해 간 후 1년 3개월여 만인 1688년 12월에 제주도로 귀환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에 『탐라지초본』에 기재된 ‘5년’이란 고상영의 표류-송환의 범주는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그가 돌아온 후 安南語를 전수했고 이후 安南通事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이를 기록한 또 다른 사료는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고상영 등 안남으로 표류했다 생환한 21명[24명 중 3명 病死]은 안

66) 李源祚, 『耽羅誌草本』 권3, 舊例條 중 譯學生.

남에 표류되어 중국인들에 의해 송환되기 전(1687년 9월~1688년 7월), 약 1년여 동안 안남 현지인들과 생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안남어 구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지며, 제주도로 귀환 후 주변인들에게 표류담을 이야기 하면서 습득한 안남어를 전수했을 가능성도 전혀 없지 않아 보인다. 그 한 예로서 1477년 2월, 유구에 표류했다가 1479년 5월 생환되어 온 김비의 일행은 문정과정에서 “처음에는 현지 유구인들과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으나,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어느 정도 원주민과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⁶⁷⁾

조선시대 朝·琉간의 통교는 중국, 일본에 비해 매우 드물었음은 물론, 琉球語 관련 通事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조선으로 표도한 유구인들과의 언어적 소통은 여타 표도 異國人들과 달리 원활하지 않았다. 1530년(중종 25) 제주도로 표도해 온 유구인 7명과 관련한 『조선왕조실록』 기사를 보면, 倭學·漢學通事가 아닌 이들을 호송하고 온 제주인들로 하여금 표도 유구인들과 소통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⁶⁸⁾ 또한 1794년(정조 18) 제주 대정현 가파도에 표도한 유구인의 경우 역시 譯學 通事들 모두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곤란에 처했으나, 마침 제주통사 이익청이 일찍이 제주도에 표류해 왔던 유구인에게서 그 나라 말을 배워 알고 있음으로, 그가 이들을 문정하고 있다.⁶⁹⁾

67) 『성종실록』 권105, 성종 10년(1479) 6월 10일 을미조, “... 우리들은 저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았습니
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땅에 있으니, 조금은 그 말하는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

68) 『중종실록』 권69, 중종 25년(1530) 10월 1일 정사조. “표류한 자는 7인이다. 그 이름은 첫째 豊加那, 둘째 阿加豆, 셋째 于無那, 넷째 他于者那, 다섯째 危那, 여섯째 賓五里, 일곱째 腰其라 하는데, **왜학통사와 한학통사가 모두 그들의 말을 모르므로 제주에서 호송하여 온 사람을 시켜 풀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유구국 사람으로서 于島에서 사는데, 올해 7월 사이에 버 베러 尼南院島에 나왔다가 폭풍을 만났다.’ ...”

69) 『정조실록』 권41, 정조 18년(1794) 9월 11일 을미조, “제주목사 沈樂洙가 장계를 올리기를, 유구국에서 표류하여 온 사람들에게 실정을 물어보니, 반드시 육로를 따라 福州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일이 지극히 해괴하여 마땅히 반복해서 질문해야 하는데 **역학 통사들이 모두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표류해 온 사람들은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실정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전라도 관찰사 李書九가 치계하기를, “유구국에서 표류해 온 사람 세 명이 영암의 이진에 이르러 상륙하였습니다. 제주 통사 李益靑이 일찍이 제주에 표류해 왔던 유구 사람에게서 그 나라 말을 배웠으므로 **익청을 시켜 실정을 물어보니,** 표류하여 온 사람이 익청과 함께 동행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표류 제주인 및 표도 이국인의 발생 빈도가 높았던 제주도는 외국어를 접할 기회 또한 많았기에 通事들도 구사할 수 없었던 유구어 등의 외국어를 능히 구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표류를 경험하지 못했던 제주인들도 이국어로 표류하였다 돌아온 제주인 또는 제주 표도 이국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한편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표류기록을 통해 살필 수 있다. 그 한 예로, 1653년(효종 4) 이원진이 제주목사 재임시기에 표류해 온 하멜 일행의 표류기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

I-1)

목사(이원진)는 우리를 자주 불러 優待하며, 그의 앞에서 그 나라 말(조선어)과 우리나라 말(네덜란드어)로 무엇을 쓰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비로소 그 나라 말의 약간을 알기 시작하였으며, 그제서는 혹 우리와 談話하기도 하고 또는 약간의 오락으로써 우리를 위안시켜 주어 마음이 유쾌함과 동시에 他日 일본에 건너가리라는 희망을 품기 시작하였다.⁷⁰⁾

위 기록을 보면 제주목사 이원진이 하멜 일행으로 하여금 조선어가 그들의 언어인 네덜란드어로 어떻게 읽히고, 쓰이는지를 배우고자 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멜 등도 조선어를 자연스레 體習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멜표류기』에는 자신들에 대한 통역 임무 맡고 조선 조정으로부터 파견된 벨테브레와의 만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I-2)

그런데 매우 놀랍고 이상스러운 일은 그때 (벨테브레) 나이가 58세인데, 그렇게 母國語를 잊어버렸는지 우리가 처음에는 그의 말을 알아듣기에 껍 곤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얼마 되지 않아 곧 도로 회복됨을 볼 수 있었다.⁷¹⁾

70) 헨드릭 하멜 著·이병도 譯, 『하멜漂流記-附 朝鮮國記』, 일조각, 1997 重版, 31쪽.

71) 위의 책, 34쪽.

1653년(효종 4) 10월 29일 하멜 일행이 만난 同鄉人 벨테브레 또한 1627년(인조 5) 제주도로 표도해 온 이국인으로서, 고국으로 귀환되지 못한 채 조선에 머물러 살고 있었다. 즉 벨테브레가 하멜 일행을 만난 시점은 그가 표도된 후 조선에 머무른 지 25년이 경과된 상황으로써, 오랜 타국 생활로 인해 모국어[네덜란드어]를 잊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하멜 일행도 무려 13년이란 기간 동안 조선에 체류되게 되는데, 위의 정황과 연결해 미루어 생각해 보았을 때, 비슷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싶다.

또한 1726년(영조 2) 유구로 표류해 간 김일남·부차웅 등 9명이 송환과정 중 王都로의 이동을 위해 加羅島 상선에 승선하였는데, 이 배에 동승한 長崎에서 장사하는 자가 예전에 조선 표류인을 본 적이 있어 조선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기록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들 표류 제주인 일행 또한, 유구 王都에서 70~80일 지내는 동안 언어가 통하게 되어 현지 유구인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해당 기록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⁷²⁾

요컨대 이국으로 표류되어진 제주인을 비롯한 제주도로 표도해 온 이국인들은 고향으로 송환되어 오기까지 해당 국가 내에서 장기적 체류를 하여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지인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서로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이국으로 표류한 제주인들 또한 그곳 현지인들에게 조선어 습득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렇게 습득되어진 외국어는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 조선으로 표도한 이국인들의 통역시 통사를 대신해 그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 다른 주변인들에게 전수되어지는 등 외국어 지식의 공유와 재생산이 이뤄졌다.

다시 말해 표류·표도라는 일련의 해난사고는 양국 간 언어교류의 창구가 됨은 물론,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있어서도 외국어 습득의 원천 및 재생산의 動因으로 작용되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보았을

72) 鄭運經, 『耽羅聞見錄』 중 第9話. “이곳에서 25일을 지낸 후 (琉球)王都에서 문서를 보내왔다. 마침 王都로 향하는 加羅島 상선이 있었으므로 우리를 싣고 가라도 갔다. … 배에는 長崎에서 장사하는 자가 있었는데, 예전에 조선의 표류인을 본 적이 있어 조선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 왕도에서 70~80일 동안 지내면서 언어가 통하게 되어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되었다.”

때, 조선시대 있어 ‘표류 제주인’, 그리고 ‘제주도’가 지녔던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와 같이 ‘이국 표류 제주인’ 및 ‘제주 표도 이국인’들이 남긴 표류 기록(표해록 포함)을 매개로 유입된 정보와 지식의 양상을 추적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이것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근대 시기 당시 닫힌 세계였던 조선과 달리 동아시아 각국은 국제적인 무역항을 거점으로 한 광역의 교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중국의 복건과 광둥, 일본의 규슈일대를 비롯, 안남[베트남], 여승[필리핀], 서양의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은 동아시아 해역을 서로 왕래하며 通交해 나갔다. 이 때 동아시아 해상 교통로의 중앙에 위치한 제주도는 이들의 里程標이자 畜港地(때때로 汲水處의 역할 수행)였던 동시에 海航의 위험요소가 산재한 주요 표착 다발지역으로서, 해역을 오가는 많은 이국인들이 빈번하게 제주도에 漂到되었다. 더불어 이국으로 표류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제주인 또한 상당했다.

이에 ‘이국 표류 제주인’과 ‘제주 표도 이국인’들은 좀처럼 해외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었던 조선 정부를 비롯한 당대 지식인에게 탐문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정리·저술하여 닫혀 있던 조선의 변화와 개방의 기회를 꾀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주목사 이원진의 『탐라지』(1653) 저술에서 태동되어졌다고 보여진다. 비록 이 책에는 표류·표도 사항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주도의 사정을 면밀히 기록한 사찬 邑誌의 효시로서, 재임 당시 표도 한 하멜 일행을 직접 마주했던 그에게 있어 제주도가 지닌 해양학적 중요성이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되어졌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후 제주목사 이익태에게로 이어져 『지영록』(1696)이 저술되었다. 이 책에는 명·청 교체

기라는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1652~1693년) 속에 발생된 표류 제주인과 제주 표도 이국인들의 사건 전말을 기록한 騰錄자료를 원천으로 삼아 동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대외정세를 재고찰하고 있다.

18세기 초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은 재임시 표도해 온 이국인 비롯, 제주인 중 생전에 해외로 표류하였다 생환되어 온 古老로부터 전해들은 해외 정보 및 표류기록을 바탕으로 『탐라순력도』(1702) 『한라장축』이란 지도를 그렸다. 그가 해당 지도에 제주도 둘레를 에워싼 주변 국가들도 함께 그려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표류·표도인에게서 획득한 지리적 정보에 기인한다 할 수 있겠다. 동시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제주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 그는 지리박물적 성격의 사찬읍지인 『남환박물』(1704)을 찬술하였다.

또한 제주목사 송정규의 저서인 『해외문견록』(1706)은 기존의 표류기록을 참고하거나 직접 표류·표도인들을 문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국의 대외정세 및 새로운 문물에 대한 정보를 살폈다. 그가 이 책에 주지해 놓았듯이 이들이 전달해 준 정보를 기록해 둬으로써 앞으로의 시대, 즉 조선의 통상 활로가 개방되는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고자 하였다.

한편 정운경도 제주목사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 제주도에 건너와 머물면서 이전의 표류기록들을 재검토해 기술함은 물론, 표류 제주인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그들이 체험하고, 전문한 이국의 실상을 『탐라문견록』(1732)에 담아내고 있다.

이후 제주목사 윤시동의 『증보탐라지』(1766) 및 이원조의 『탐라지초본』(1845) 등의 저서를 보면 『漂船接訟異國問情』條 및 『邊情』條에 제주도에서 발생된 표류·표도 사례를 별도로 다루고 있음에 따라 해당 사건이 지녔던 가치를 보다 중요시했음을 엿볼 수 있다.

요컨대 ‘이국 표류 제주인’ 및 ‘제주 표도 이국인’들의 이야기는 성리학의 사상적 각성에 의해 조선의 변화와 개방의 기회를 피하고 있던 17~18세기 당대 실학자들에게 자극제로 작용하였으며, 바다를 통한 통상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발판이 되었음이 미루어 짐작 가능하다. 이에 이들 표류 제주인을 비롯한 제주 표도 이국인들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조선의 정

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이국에 관한 이색적인 정보(지리, 지형·풍토, 물산, 대외정세)와 지식(수차 및 병기제작, 선박제도·조선술, 외국어) 등을 전달하는 중요한 첨병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또 다른 제 3자에게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을 전수하는 등 지식의 공유와 재생산의 動因으로 작용되어지고 있었다.

그 결과 제주도는 ‘해양의 양면적 체제를 전개해 나가는 15~1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속에서도 ‘중국-일본(또는 유구), ‘일본-유구’, ‘동남아시아-일본(또는 유구), ‘서양-일본’ 등 ‘중국-일본-유구-동남아시아-서양’이라는 교역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함에 따라 동아시아 해상교류의 交通要路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 누구보다도 바다를 무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여러 각 지역의 주변정세에 밝았고, 외부 세력에 기민하게 대응할 줄 알았던 이국 표류 제주인 및 제주 표도 이국인들이 전달해 준 해외의 이색적인 정보와 지식은 당시 조선 실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국 이는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정보원으로 작동되어 당시 조선의 닫힌 세계의 빗장을 열어주는 매개체적 역할을 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주제어]

제주도, 이국 표류 제주인, 제주 표도 이국인, 표류기록, 정보, 선진기술, 지식

■ 참고문헌

1. 사료

『朝鮮王朝實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漂人領來謄錄』, 『通文館志』, 『同文彙考』, 『變例集要』, 『濟州啓錄』, 『漂海錄』(崔溥), 『知瀛錄』, 『南宦博物』, 『海外聞見錄』, 『耽羅見聞錄』, 『增補耽羅誌』(尹蒼東), 『漂海錄』(張漢喆), 『耽羅誌草本』, 『稗官雜記』, 『靜觀齋集』, 『海槎日記』, 『碩齋稿』, 『牧民心書』, 『燕轅直指』, 『山木軒集』, 『研經齋全集外集』, 『五洲衍文長箋散稿』

2. 저서

고창석·김상욱 譯, 『濟州啓錄』, 제주발전연구원, 2012.
국사편찬위원회, 『邊例集要』上·下, 國史編纂委員會 編, 1974.
김지남·김경문 엮음, 김구진·이현숙 옮김, 『국역 통문관지』1~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민덕기, 『조선시대 일본의 대외교섭』, 경인문화사, 2010.
박지원 著·박희병 譯, 『고추장 작은 단지를 보내니』, 돌베개, 2005.
서귀포시 편, 『濟州啓錄』(영인본), 서귀포시, 1995.
서울대학교교양장각, 『漂人領來謄錄』1~7, 보경문화사, 1993.
송정규 著, 김용태·김새미오 譯, 『해외문견록』, 휴머니스트, 2015.
이원조 著·고창석 譯, 『耽羅誌草本』上·下, 제주교육박물관, 2007.
이익태 著·김익수 譯, 『知瀛錄』, 제주문화원, 1997.
이형상 著, 이상규·오창명 譯, 『남환박물』, 푸른역사, 2009.
정 민,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2008.
정성일, 『전라도와 일본 조선시대 해난사고 분석』, 경인문화사, 2013.
정운경 著·정민 譯, 『탐라문견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휴머니스트, 2008.
하우봉, 『제6장 문물 교류와 상호 인식』, 『朝鮮과 琉球』, 아르케, 1999.
핸드릭 하멜 著·이병도 譯, 『하멜漂流記-附 朝鮮國記』, 일조각, 1997.

3. 논문

고석규, 『조선시기 표류경험의 기록과 활용』, 『島嶼文化』 제31집, 목포대 도서관화연구소, 2008.
김나영, 『조선시대 濟州島 漂流·漂到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반운홍, 『조선후기 비변사의 국외정보 파악 양상』, 『韓國史學報』 제20호, 고려사학회, 2005.
오상학, 『耽羅巡歷圖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 『耽羅巡歷圖研究論叢』, 濟州市·耽羅巡歷圖研究會, 2000.
오인택, 『조선후기 고구마 전래와 정착 과정』, 『역사와 경계』 97, 경남사학회, 2015.

- 와타나베 미키(渡邊美季), 『朝鮮人漂流民の見た「琉球」-1662-63年の大島-』, 『沖繩文化』第46卷 1号, 『沖繩文化』編集所, 2012.
- 원종민,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의 유형과 그 사회적 영향』, 『中國學研究』제44집, 中國學硏究會, 2008.
- 정성일, 『한국 표해록의 종류와 특징』, 『島嶼文化』제40집, 목포대 도서관硏究所, 2012.
- 정형지, 『조선후기 농서를 통해 본 고구마 재배기술』, 『梨花史學硏究』第33輯, 梨花史學硏究所, 2006.
- 최영화, 『조선시대 표류를 통한 해외정보의 수집과 활용의 추이』, 『동아시아 문화 교류와 이동의 기록』, 보고서, 2015.



Information · Knowledge Inflow Pattern Through the Jeju Castaways and the Foreign Castaways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Kim, Na-Young

(Ph.D., Department of History Studies, Jeju National University
Curator, World Heritage Offic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paper traces the patterns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that have flowed through ‘Jeju castaways’ and ‘foreign castaways’ and ultimately examined the impact on the Joseon society.

Unlike Joseon, which was enclosed world during the 15th~19th centuries, East Asian countries had formed a wide trade network based on international trade ports. In other words, Fujian and Guangdong in China, Kiushu in Japan, Vietnam, Philippines, Portugal and Netherlands in the west have been exchanged and entered into friendly relations with each other in the East Asian waters. At this time, Jeju Island which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East Asian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 was a milestone and port of call (occasionally served as a water source), and a major spot where many dangerous elements were scattered. Many foreigners who traveled to and from the ocean were often drifted on Jeju Island. In addition, the number of Jeju Islanders who were drifted to a foreign country and then returned after barely survived were significant. Hence, the ‘Jeju castaways’ and the ‘foreign castaways’ provided opportunities to explore outside for intellectuals including the Joseon government who could hardly access information about the foreign

countries. Moreover, the Joseon government attempted to change and open up their country by organizing and writing castaways' experience.

In other words, the 'Jeju castaways' and the 'foreign castaways', who were engaged in the business of the ocean more than anyone, were familiar with the surrounding situation of various regions, acted smartly to external forces, and delivered the extraordinary information and knowledge from abroad. The delivered information and knowledge stimulated the curiosity and acted as a driving force for Joseon intellectuals who had attempted to change and open up the country through ideological awakening of Neo-Confucianism at that time. Thus, this suggests that it played a mediating role in opening the closed world of Joseon at that time.

Regardless of their intention, these castaways played an important frontier role to deliver the extraordinary information (geography, topography · climate, product, foreign affairs), and advanced technology and knowledge (hydraulic turbine and weapon producing, vessel system · shipbuilding, foreign language). In this regard, they were responsible for international exchanges in the informal sphere. At the same time, they were used as an opportunity to share knowledge and reproduce such as transferring learned knowledge to other third parties.

[Key words]

Jeju Island, Jeju Castaways, Foreign Castaways, Record of Castaways, Information, Advanced Technology, Knowledge

논문투고일: 2018년 5월 17일 / 논문수정일: 2018년 6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8년 6월 18일